

碩士學位 請求論文

新羅 彌勒像의 圖像에 대한 研究

慶州大學校大學院

文化財學科

李 熙 鎮

指導教授 李 康 根

2001年 12月

# 新羅 彌勒像의 圖像에 대한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李 熙 鎮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教授 李 康 根

2001年 12月

李熙鎭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慶州大學校大學院

2001年 12月

- 목 차 -

I. 序論 .....	1
II. 新羅 彌勒像의 造像 背景 .....	5
1. 古新羅 .....	5
2. 統一新羅 .....	11
III. 彌勒圖像 成立의 根據 .....	15
1. 彌勒菩薩의 소의경전 .....	16
2. 彌勒佛의 소의경전 .....	22
IV. 新羅 彌勒像의 圖像 分析 .....	29
1. 新羅 彌勒菩薩像의 圖像  분석 .....	29
1) 半跏思惟像 .....	30
2) 甘山寺 石造彌勒菩薩立像 .....	35
2. 新羅 彌勒如來像의 造像  분석 .....	40
1) 三花嶺 彌勒三尊像 .....	40
2) 斷石山 磨崖彌勒像 .....	47
3) 茸長寺 石造如來坐像 .....	52
V. 新羅 彌勒像의 彫刻史的  의의 .....	57
VI. 結論 .....	61
참고문헌 .....	65
도    판 .....	

- 표 목 차 -

<표 1> 용장사 석조여래좌상 존명 .....	55
<표 2> 신라 미륵상의 형식과 조상시기 .....	57
<표 3> 신라 미륵상의 조상 배경 .....	58

## 도 판 목 록

- 圖1. 운강석굴 제9굴 교각미륵보살상. 복위.  
(『中國石窟：雲岡石窟』二, 1994 : 圖.10)
- 圖2.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6세기 후반.  
(『금동불』, 2000 : 圖.20)
- 圖3.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7세기 전반.  
(『금동불』, 2000 : 圖.23)
- 圖4. 북제 천보3년명(552) 수하미륵오존상 앞면, 일본 대원미술관.  
(『원용과 조화』, 1996 : 圖. 99)
- 圖5. 북제 천보3년명(552) 수하미륵오존상 뒷면, 일본 대원미술관.  
(『원용과 조화』, 1996 : 圖. 100)
- 圖6. 수하보살병입상 앞면, 북제, 쾰른 동양미술관.  
(『원용과 조화』, 1996 : 圖. 101)
- 圖7. 수하보살병입상 뒷면, 북제, 쾰른 동양미술관  
(『원용과 조화』, 1996 : 圖, 102)
- 圖8. 수하사유오존상, 북제, 동경국립박물관.  
(『원용과 조화』, 1996 : 圖. 107)
- 圖9. 경주 송화산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7세기,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1998 : 圖.136)
- 圖10. 단석산 신선사 마애반가사유상, 7세기.  
(『마애불』, 1998 : p.47)
- 圖11. 서산 마애불 반가사유상, 6세기.  
(『마애불』, 1998 : p.38)
- 圖12.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사유상, 7세기 후반.  
(『원용과 조화』, 1996 : 圖.89)
- 圖13.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7세기 후반 (사진 : 필자)
- 圖14.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7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국립중앙박물관』, 1996 : p.235)
- 圖15.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세부)  
(『석불』, 1997 : p.89)
- 圖16. 삼화령 미륵삼존상 우협시보살상  
(『韓國佛教美術大典』, 1994 : p.51, 圖.42)
- 圖17. 칠불암 마애삼존상 협시보살상, 8세기 초. (사진 : 필자)
- 圖18. 보경사 전래 11면관음보살입상, 8세기초.  
(『吐舍山地域 佛教遺蹟 調查研究』, 2000 : p.57, 圖.2-6)
- 圖19. 약사사 금당 금동약사삼존상 우협시보살상, 8세기 초.  
(『吐舍山地域 佛教遺蹟 調查研究』, 2000 : p.61, 圖.2-23)
- 圖20. 공주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7세기, 국립공주박물관.  
(『금동불』, 2000 : 圖.33)
- 圖21. 경북 선산 출토 금동관음보살입상, 7세기, 국립대구박물관.  
(『금동불』, 2000 : 圖.35)
- 圖22. 삼화령 석조미륵삼존상,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644년 추정.  
(『국립경주박물관』, 1998 : 圖.134)
- 圖23. 삼화령 미륵삼존상 본존상  
(『韓國佛教美術大典』, 1994 : p.50, 圖.42)
- 圖24. 삼화령 미륵삼존상 좌협시보살상  
(『韓國佛教美術大典』, 1994 : p.51, 圖.42)
- 圖25. 배리삼채불, 7세기 전반기.  
(『韓國佛教美術大典』, 1994 : 圖.47)
- 圖26. 분황사석탑(634) 서편 인왕상 (사진 : 필자)
- 圖27. 북주 건덕 2년(574) 석조미륵삼존상 감숙성박물관 소장  
(『신라미술의 대외교섭』, 2000 : p.38, 圖.26)
- 圖28. 북제 천보 8년(557) 석조미륵삼존상 대관시립박물관 소장  
(『신라미술의 대외교섭』, 2000 : p.38, 圖.27)
- 圖29. 선도산 마애삼존불상, 7세기 후반기.

- (『韓國佛教美術大典』, 1994 : 圖76)
- 圖30. 법주사 마애미륵의좌상, 고려 10세기, 법주사.  
(『마애불』, 1998 : p.116)
- 圖31. 인도 쿠산왕조 시조 웨마 카스피세스상. 미투라박물관 소장.  
(『佛陀의 世界』, 1999 : 圖.14-134)
- 圖32. 엘로라 탑원 제10굴 내부 석주 의좌형삼존상. 7세기.  
(『佛陀의 世界』, 1999 : 圖.4-64)
- 圖33. 운강석굴 제6굴 중심 탑주 남면 하층 감실 의좌여래상.  
북위. (『中國石窟 : 雲岡石窟』 一, 1991 : 圖.57)
- 圖34. 돈황 막고굴 제390굴 북벽 수하설법삼존상. 수.  
(『실크로드』 ① 長安·河西回廊·敦煌, 1987 : 圖.79)
- 圖35. 단석산 마애미륵여래입상, 7세기 전반기.  
(『마애불』, 1998 : p.48)
- 圖36. 배리삼채불 본존상. (『경주남산』 둘, 1996 : p.40)
- 圖37. 단석산 동쪽 암벽 마애보살입상 (사진 : 필자)
- 圖38. 단석산 남쪽 암벽 마애보살입상 (사진 : 필자)
- 圖39. 용장사 마애여래좌상, 8세기 후반. (사진 : 필자)
- 圖40. 윤을곡 마애불, 太和乙卯九年(835)  
(『경주남산』 하나, 1998 : p.34)
- 圖41. 운강석굴 제16굴 석조여래입상, 북위.  
(『雲岡』, 2000 : p.60)
- 圖42. 용장사 삼층연화대 석조여래좌상, 8세기 후반.  
(『경주남산』 둘, 1996 : p.35)
- 圖43. 용장사 삼층연화대 석조여래좌상 세부. (사진 : 필자)
- 圖44.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8세기 후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국립경주박물관』, 1998 : 圖.133)
- 圖45. 삼릉계 목없는 석조여래좌상 (사진 : 필자)
- 圖46. 삼릉계 목없는 석조여래좌상 세부 (사진 : 필자)

圖47.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사진 : 필자)

圖48. 불국사 금동비로자나여래좌상. 불국사 극락전. 8세기 후반.

(『韓國佛教美術大典』, 1994 : 圖.115)

圖49. 공현석굴 제4굴 심주 미륵상

圖50. 개황 9년(589) 안양 영천사 대주성굴 전경

(『中國美術全集』 13, 1989 : 圖.205)

圖51. 안양 영천사 대주성굴 내부 동벽 감실 미륵삼존상

(『中國美術全集』 13, 1989 : 圖.213)

圖52. 석굴암 본존상. 751년. (『토함산석굴』, 2000 : p.23)

# A Study on Maitreya Iconography in Silla Dynasty

Lee, Heui Jin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Graduate School, Ky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Kang-Geun)

## (Abstract)

Maitreya(彌勒), the old India language is translated as Jassi(慈氏) in Chinese. As Maitreya is a Bodhisattava destined to be a Buddha in the next world, succeeding the present Buddha Sakyamuni

The representative Buddhism Bibles connected with Maitreya are The Great Successful Buddhistic Bible of the Low Grade with the Buddhism of Buddha for Maitreya translated by Guramajip, The Buddhistic Bible of the Low Grade with the Buddhism of Buddha for Maitreya translated by Chookbeopho, and The Great Dosol Bible of the High Grade with the Buddhism and Views of Buddha for Maitreya translated by Jeogeogyungseong. They are called The Three Bibles of Maitreya. The statues of Maitreya have been carved in various forms based on these bibles.

The forms of Maitreya have been largely composed of Bodhisattva Statues and Buddha Statues. And in the case of Bodhisattva Statues, most of them are Contemplative Statues and Standing Bodhisattvas, and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of 6 and 7th centuries, many Contemplative Statues were carved.

The statues of Maitreya of the Silla Kingdom which have been left up to the present are Contemplative Statues and Standing Bodhisattva of Gamsansa Temple. The Contemplative Statues are in the forms of sitting with the legs half-crossed but the statues of Maitreya carved during the period of the Unified Kingdom Of Silla are in the forms of standing statues. In Chuna, Maitreya Bodhisattva Statues are carved in the forms of cross-ankled poses and the poses of half-crossed legs, but it seems that our country did not receive the forms of cross-ankled Maitreya statues.

Considering the Contemplative Statues iconographically, they are the Maitreya Bodhisattva Statues of the Dosol and so they originated from the philosophy of Rebirth of the Dosol. Though the Contemplative Statues iconographically originated from the statues of the Prince Imperial who entered the priesthood, they are the Maitreya Bodhisattva Statues who were reborn in the Dosol after the North Je of China. With the introduction of iconography, they came to have the iconographic character of the Maitreya Bodhisattva Statues rather than that of the prince-imperial Statues. And also in Silla, the Contemplative Statues were accepted as the Maitreya Bodhisattva Statues of the Dosol and they were carved in the forms of the Maitreya Bodhisattva Statues.

The Maitreya Buddha Statues are generally in the forms of seated statues, and have the forms of the Statues of Three Great Persons(Samjonsang) and the Statue of the Only Great Person(Dokjonsang). In Silla, the seated statues of the Maitreya Buddha Statues express the seated forms of Gyulgabujwa such as the statues seated on the chair like the Maitreya Three Great Persons' Statues of Samhwaryung, or as the statues in the forms of the Maitreya Buddha Statues of Three-Story Lotus Pedestal

of the site of Yongjangsa Temple. But the Relife Maitreya Buddha Statue of Mt. Danseok should be regarded as an exception in terms of iconography.

The Maitreya Statues carved in the 7th century of the old Silla are depicted differently in the forms of the statues seated on the chair and the standing statues, but we can understand that the iconographic backgrounds of carved statues of the Philosophy of the Past of Maitreya and the philosophy of the All Justice King are reflected.

The Maitreya Statues carved during the period of the Unified Kingdom of Silla are the Standing Maitreya Bodhisattva Statue of the Gapsansa Temple and the Sitting Stone Maitreya Buddha on the Three-story Lotus Seat. One characteristic of these statues is that the Maitreya Bodhisattva Statue is in the form of a standing pose. It seems to be because the Bohisattva Statues carved in the forms of Assistance Bodisattva Statues were carved in the forms of a Single Statue.

After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contrary to the earlier part of the Unified Kingdom of Silla, the Buddhism of all the universe(法相宗) was established, the character of the philosophy of Maitreya changed with more concern for the thoughts of the people rather than for the sovereignty. Though the Buddhism of All the Universe(Beobsangjong) was much believed in, the examples of the carving of the statues are few. It is believed to be because the carving of Vairocana Buddha(毘盧舍那佛) Statues was very popular owing to the great popularity of Avatamska Buddhism(華嚴宗) and Zen Buddhism(禪宗).

## I. 序論

미륵(彌勒)은 범어(梵語)로 Maitreya, 중국어에서는 자씨(慈氏)라고 번역한다. 미륵은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로 현재불(現在佛)인 석가모니를 이어 다음 세계의 부처가 되기로 정해진 보살이다. 즉 석가모니불이 과거불(過去佛)·현재불(現在佛)인 것에 대하여 미륵은 미래불(未來佛)·당래불(當來佛)이다. 따라서 미륵은 현재에는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보살이지만, 다음 세계의 부처가 되는 것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륵불(彌勒佛)이라고도 불리며 미륵은 보살상(菩薩像)이나 여래상(如來像)으로 조상(造像)되기도 한다.

미륵과 관련된 대표적인 소의경전으로는 구마라집 역(鳩摩羅什 譯)의 『불설미륵하생대성불경(佛說彌勒下生大成佛經)』 축법호 역(竺法護 譯)의 『불설미륵하생경(佛說彌勒下生經)』 저거경성 역(沮渠京聲 譯)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으로 이들 경전을 ‘미륵삼부경(彌勒三部經)’이라 한다. 여기에서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을 ‘상생경(上生經)’이라 하고 『불설미륵하생경』과 『불설미륵하생대성불경』을 ‘하생경(下生經)’이라고도 부른다.

상생경은 석가모니의 제자인 미륵이 이상적인 세계인 도솔천(兜率天)에 왕생(往生)할 것이며, 중생들도 계율(戒律)을 지키고 십선도(十善道)를 닦게 되면 역시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히 왕생신앙(往生信仰)을 강조하고 있다. 하생경은 미륵이 하생하게 될 세상은 전륜성왕(轉輪聖王)이 통치하는 미래세계로, 그 세계를 설명하고 미륵의 탄생, 성도, 제도 그리고 입멸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삼회설법(三會說法)을 통하여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미륵 소의경전을 근거로 미륵상은 여러 가지 형태(形態)로 조상(造像)되어 왔다. 미륵상의 형태는 크게 보살상과 여래상, 두 부류로 형태로 조상되었다. 그런데 보살상의 경우는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과 보살입상(菩薩立像)으로 많이 조상되었는데, 특히 6~7세기에 삼국시대에는 반가

사유상이 많이 조성되었다.<sup>1)</sup>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신라시대 미륵보살상 작품은 반가사유상을 비롯하여 감산사(甘山寺) 미륵보살입상으로 반가사유상은 반가의 형식이지만 통일신라기에 조성되었던 미륵보살상은 입상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교각좌(交脚坐) 형식과 반가좌 형식의 미륵보살상이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각미륵상(交脚彌勒像)의 형식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륵여래상(彌勒如來像)은 일반적으로 좌상(坐像)의 형식으로 삼존상(三尊像)이나 독존(獨尊)의 형태로 나타난다. 신라 미륵여래상으로서 좌상의 경우는 삼화령(三花嶺) 삼존상(三尊像)과 같은 의좌상(倚坐像)이나 용장사지(葺長寺址)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과 같이 결가부좌(結跏趺坐)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도상으로는 단석사(斷石山) 마애미륵상(磨崖彌勒像)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미륵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신라 미륵상 연구에 대한 대상으로는 충분하리라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미륵과 관련한 연구는 불교사와 관련한 사상사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조각사(彫刻史)로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각 상들

---

1) 新羅 半跏思惟像과 관련된 研究는 다음과 같다.

姜友邦, 「金銅三山冠思惟像-三國時代 彫刻論의 一試圖-」 『미술자료』 22, 1978.

\_\_\_\_\_, 「金銅一月飾三山冠思惟像-東魏樣式계열의 6세기 高句麗, 百濟, 古新羅의 佛像彫刻樣式과 日本 止利樣式的 新解釋-」 上 『美術資料』 30 ; 同論文, 下 『美術資料』 31, 1982.

金理那, 「三國時代 佛像樣式研究의 諸問題」 『美術史研究』 2, 1988.

金和英, 「國立中央博物館所藏 金銅半跏思惟像 造成年代에 대한 再考-足座蓮花文을 中心으로-」 『考古美術』 136·137 합집, 1978.

朱秀浣, 「新羅 石造半跏思惟像 研究」 『佛教美術研究』 3·4 合輯, 東國大學校 불교 미술문화재연구소, 1997.

黃壽永, 「新羅半跏思惟像」 『李弘植博士回甲記念論叢』, 乙酉文化社, 1964 ; 同著,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90.

\_\_\_\_\_, 「彌勒信仰과 그 造像」 『韓國彌勒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岩崎和子, 「廣隆寺寶冠彌勒に關する 二, 二の考察」 『半跏思惟像研究』, 1985

\_\_\_\_\_, 「韓國國立中央博物館(舊總督府博物館)藏 金銅半跏思惟像について」 『論叢佛教美術史』, 1986.

田村圓澄·黃壽永, 『半跏思惟像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에 대한 고찰(考察)<sup>2)</sup>로 이루어졌을 뿐 신라 미륵상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신라 미륵상들의 각 상만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고찰로 인해 각 시기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미륵도상의 특징들

2) 먼저 黃壽永 先生은 「慶州 南山 三花嶺彌勒世尊」(『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乙酉文化史, 1969. pp.909~944)에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石造三尊像은 『三國遺事』 「生義寺石彌勒」條 三花嶺彌勒像으로 비정하고 발견경위와 형식, 양식적 고찰을 통하여 신라 7세기 중반인 644년(선덕여왕 12)에 조성한 것으로 불상이 발견된 곳이 古墳이 아니라 石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뒤 1973년에 「斷石山神仙寺石窟磨崖像」(『韓國佛像의 研究』, 三和出版社, 1973, pp.183~198)에서 단석산 마애불상군의 조사경위와 각 상들의 배치상황, 형식 및 양식 그리고 명문 등을 고찰하여 조성시기는 三國末 6세기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남쪽 벽면의 30행으로 된 명문의 내용을 판독한 결과 이곳의 사찰명이 神仙寺이고 존명이 미륵삼존임을 밝혔다.

文明大 先生은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上/下」(『歷史學報』 62/63, 1974, 6/9, pp.75~105 / pp.133~162.)를 통하여 佛教美術과 敎理를 서로 연관시켜 파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교미술의 연구와 폭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되어있는 감산사 미륵보살상 과 아미타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광배의 명문을 중심으로 신라 법상종의 성립과 신앙계층 그리고 당시의 불교 미술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었다. 명문에 의하면 719년(聖德王 18)에 金志城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조성한 불상이라 하고 이러한 불상의 양식은 650년경을 전후하여 良志派의 이상적 사실주의가 인도 굽타시대와 성당시대(盛唐時代)의 사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완성된 이상적 사실주의라 하고 있다. 신라 법상종은 8세기 전반에 이미 성립되어 圓測에서 道證, 太賢으로 이어지는 종파로 圓光의 攝論宗的) 眞表系 법상종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상종 미술의 특색으로 金堂에 미륵존상을, 講堂에 아미타불을 봉안하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다. 곧 이어 「太賢과 葦長寺의 佛教彫刻」(『白山學報』 17, 1974. 12, pp.113~159)을 통하여 경주 남산 용장사지의 彌勒尊像과 磨崖佛像을 중심으로 신라 법상종과 그 미술의 성격을 밝혔다. 『三國遺事』 「賢瑜伽」條의 기록을 통하여 太賢은 법상종의 祖師이고 8세기 전반에 용장사를 창건하고 미륵존상과 마애불상을 조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현재 彌勒丈六像의 머리부분은 없어졌지만 왼쪽 어깨의 띠매듭이 무릎까지 내려와있고 그 끝에 수술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彫刻像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조선시대 高僧影幀에서 더러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裳懸의 옷주름은 半跏思惟像의 옷주름과 닮고 있어 이 像의 성격을 미륵보살로 추정하고 있다. 조성연대는 8세기 2/4분기(725~750)로 추정하였다. 마애여래상은 光背와 臺座를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로 얼굴과 둥근 어깨, 옷주름 등에서 남산 彌勒谷 菩提寺 石造如來坐像의 조각수법이 비슷하여 8세기 3/4분기(750~775)로 미륵존상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용장사의 두 상의 존명은 미륵보살과 아미타불상으로 통일신라 8세기의 대표적인 법상종의 미술이라고 하였다.

金吉雄 先生은 「倚佛坐像考」(『文化史學』 6·7, 韓國文化史學會, 1997)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3구의 의불좌상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인도와 중국의 예와 비교하고 미륵과 의불좌상의 관계에 대하여 미륵상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미륵이 의불좌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인도 보다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미륵상들에 대한 성격 문제가 제기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라 미륵상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면서 미륵보살상과 미륵여래상을 분류하여 도상 분석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본 연구는 II에서는 미륵조상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과 불교사적인 배경을 재검토하여 고신라와 통일신라시대의 미륵상의 조상배경(造像背景)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미륵의 소의경전인 『미륵삼부경』을 분석하여 미륵보살상과 미륵여래상의 경전상에 나타나는 도상(圖像)적 근거(根據)를 살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고신라와 통일신라시기에 조상된 미륵상의 양식적인 검토를 통해 제작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각 상의 도상적인 근거를 분석함으로써 미륵상의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II장에서 IV장까지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신라 미륵상이 가지는 조각사적 의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 II. 신라(新羅) 미륵상(彌勒像)의 조상(造像) 배경

신라(新羅) 미륵상(彌勒像)의 조상(造像) 배경(背景)에 대해서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 즉 고신라(古新羅)와 통일신라(統一新羅)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삼국이 대립하고 경쟁하였던 고신라에서는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인 체제(體制)를 갖추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시기의 미륵신앙은 6~7세기에는 미륵상생신앙(彌勒上生信仰)이 주류를 이루면서 반가사유상이 조상되다가 7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륜성왕사상(轉輪聖王思想)과 미륵하생사상이 결합하여 국가적(國家的)인 양상(樣相)으로 전개되고 미륵 조상 또한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을 중심으로 미륵여래상(彌勒如來像)이 조상된다.

반면, 통일신라시대에는 전제왕권(專制王權)이 확립되고 골품제(骨品制)를 통한 계급사회가 강화되면서 미륵신앙보다는 아미타신앙(阿彌陀信仰)이 강조되어 아미타상의 조상이 활발해진다. 그에 따라 미륵신앙의 대상은 6두품 계급을 중심으로 신앙계층이 이동하게 되었다. 미륵조상의 형태는 통일신라 전반기에는 미륵상생신앙 중심으로 미륵보살상이 조상되고, 통일신라 후반기에는 미륵하생신앙과 결합한 미륵여래상이 조상되었다.

본 단원에서는 신라를 크게 고신라와 통일신라 두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 미륵신앙과 미륵조상배경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 1. 고신라(古新羅)

신라의 불교수용은 눌지왕대(訥祗王代 : 417~458)에 고구려의 승려 묵호자(墨胡子)에 의한 전래되었으나, 불교의 공식적인 수용은 그보다 늦은 법흥왕(法興王) 14년(527)에 이르러서 불교가 공인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불교공인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약 150년이 늦은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미륵신앙(彌勒信仰)도 같이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이때부터 미륵신앙과 조각양식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sup>3)</sup> 그러나 진흥왕대(眞興王代 : 540~570)에 이르러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로 해로를 통해 중국과 교류가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 10년(549)에 신라의 구법(求法) 유학승(留學僧)인 각덕(覺德)이 양(梁)의 사신과 함께 오면서 불사리를 가지고 왔으며, 또 진흥왕 26년(565)에는 진(陳)에서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明觀)으로 하여 불경론(佛經論) 1,700여 권을 보내어 왔다.<sup>4)</sup>

이로 미루어 볼 때 신라에서는 중국의 남조(南朝)와 불교문화유입을 위한 교류가 있었고 남조불교의 신앙과 교학적인 모든 면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 남조에서 성행하였던 불교신앙 중에서 미륵신앙과 관련한 화림원(華林園)의 팔관재(八關齋)와 용화회(龍華會)등을 비롯하여 법화 실천적(法華實踐的) 미륵신앙 등이 신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던 것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sup>5)</sup> 그리고 7세기초에는 600년에 귀국한 원

---

3) 金煥泰 先生은 「現存 佛像銘을 통해 본 高句麗 彌勒信仰」(『蕉雨黃壽永博士古稀記念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pp.443~453)에서 고구려의 彌勒信仰의 수용은 최초 불교 수용당시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4세기 말 중국에서 이미 미륵신앙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는 현존하는 금동광배 명문이 있는 상으로는 辛卯銘(571) 金銅三尊佛像과 永康7年銘(551) 金銅光背의 銘文을 분석하여 無量壽佛과 彌勒에 대한 신앙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도 마찬가지로 불교신앙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또 미륵신앙을 분석하여 上生信仰과 下生信仰은 따로 분리하여 신앙되지 않았고,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신라에서 미륵신앙이 크게 유행한 점을 들어서 고구려에서 이미 미륵신앙이 크게 유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고구려의 미륵신앙도 현실 이익적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三國의 彌勒信仰」(『韓國彌勒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pp.11~60)을 통해서 고구려의 미륵신앙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백제의 미륵신앙은 益山 彌勒寺 創建 설화와 관련하여 彌勒上生信仰과 彌勒下生信仰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미륵하생신앙이 더 신앙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고구려를 통해 北朝의 미륵신앙을 받아들였고, 백제를 통해 南朝의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아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이 복합적으로 신앙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미륵신앙을 兜率天의 彌勒菩薩이나 未來의 彌勒佛로 두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끌어들여 國家利己的인 면에서 미륵 신앙을 수용·전개한 것으로 보았다.

4) 『三國史記』 卷4, 「眞興王 10年」條, 「眞興王 26年」條.

광(圓光), 602년에 귀국한 지명(智明), 605년에 귀국한 담육(曇育)과 안홍(安弘) 등이 남조(南朝)의 진(陳)과 북주(北周), 수초(隋初)의 불교를 배워 돌아오면서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조각양식을 보여주는 불상이나 범본을 그림들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sup>6)</sup> 그러므로 진흥왕대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의 불상양식을 수용<sup>7)</sup>은 물론, 중국의 미륵사상 또한 수용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라에서 최초의 불교 전래는 고구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륵 신앙 또한 고구려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에서 귀화한 승려 혜량(惠亮)을 국통(國統)으로 삼고 신라에서 처음으로 백좌강회(百座講會)와 팔관법(八關法)을 행하게 했다고 한다.<sup>8)</sup> 팔관법(八關法)은 제악불선(諸惡不善)과 관련된 것을 멀리하고 청정(淸淨)한 정심선행(正心善行)을 보호하고 지키는 팔계(八戒)를 수행하는 불타(佛陀)의 정재법(正齋法)으로, 이 법을 행하면 사천왕천을 비롯한 도솔천 등의 제천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sup>9)</sup> 이에 대해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의하면 팔계(八戒)를 수행하면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兜率天)에 왕생(往生)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과 『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에서도 팔계를 수행하면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미륵이 있는 도솔천에 왕생하고자하는 팔관법이 처음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아 혜량이 신라에 미륵신앙을 전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5) 김영태, 「三國의 彌勒信仰」 『韓國彌勒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pp.48~49.

6) 최성은, 「新羅佛敎彫刻의 對中關係」 『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0, p.15.

7) 대체로 6세기 중엽까지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고구려와 백제 조각에 크게 의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신라가 직접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여 중국양식을 수용하게 되면서부터 불교조각의 조상활동도 활발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존하는 신라의 불상들이 대부분 6세기말부터 통일기 사이에 집중되어 있음은 이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최성은, 「新羅佛敎彫刻의 對中關係」 『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0, p.11.

8) 『三國史記』 卷44 「居柒夫」 條.

9) 金煥泰, 「三國時代의 彌勒信仰」 『韓國彌勒思想研究』, 佛敎文化院編,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신라에서 미륵신앙과 관련된 사료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진지왕대(眞智王代 : 576~579)의 미륵선화(彌勒仙花)와 관련된 내용을 들 수 있다.

「진지왕(眞智王)때에 와서 흥륜사(興輪寺)에 중 진자(眞慈 ; 혹은 貞慈라고 함)가 항상 이 당(堂)의 주인인 미륵상(彌勒像) 앞에 나가 발원(發願)하여 맹세해 말했다. “우리 대성(大聖)께서는 화랑(花郎)으로 화(化)하시어 이 세상에 나타나 제가 항상 수용(睟容)을 가까이 뵈고 받들어 시중을 들게 해주십시오.” 그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원하는 마음이 날로 더욱 두터워지자, 어느 날 밤 꿈에 중 하나가 말했다. “네가 웅천(熊川 : 지금의 公州) 수원사(水源寺)에 가면 미륵선화(彌勒仙花)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자(眞慈)는 꿈에서 깨자 놀라고 기뻐하여 그 절을 찾아 열흘 길을 가는데 발자국마다 절을 하며 그 절에 이르렀다. 문 밖에 탐스럽고 곱게 생긴 소년이 있다가, 예쁜 눈매와 입맵시로 맞이하여 작은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 객실로 안내하니.....(중략)..... 산신령(山神靈)이 노인으로 변하여 나와 맞으면서 말한다. “여기에 무엇 하러 왔는가.” 진자가 대답한다. “미륵선화를 보고자 합니다.” 노인이 또 말한다. “저 번에 수원사(水源寺) 문 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보았는데 다시 무엇을 보려는 것인가.” 진자는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내 달려서 본사(本寺)로 돌아왔다.....(중략).....진자는 왕의 뜻을 받들어 무리들을 모아 두루 마을을 돌면서 찾으니, 단장을 갖추어 얼굴 모양이 수려한 한 소년이 영묘사(靈妙寺) 동북쪽 길가 나무 밑에서 거닐며 놀고 있었다.....(중략).....이에 진자는 그를 가마에 태워 가지고 들어가 왕께 뵈었다. 왕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받들어 국선(國仙)을 삼았다.<sup>10)</sup>」

10) 이민수 옮김,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96. pp.309~311.

及眞智王代. 有興輪寺僧眞慈(一作貞慈也). 每就堂主彌勒像前, 發原(願)誓言. 願我大聖化作花郎. 出現於世. 我常親近睟容. 奉以周旋. 其誠懇至禱之情. 日益彌篤. 一夕夢有僧. 謂曰. 汝往熊川(今公州)水願寺. 得見彌勒仙花也. 慈覺而驚喜. 尋其寺, 行十日程. 一步一禮. 及到其寺. 門外有一郎. 濃纖不爽. 盼倩而迎. 引入小門. 邀致貧軒.....(중략).....山靈變老人出迎曰. 到此奚爲. 答曰. 願見彌勒仙花爾. 老人曰. 向於水源寺之門外. 已見彌勒仙花. 更來何求. 慈聞驚汗. 驟還本寺.....(중략).....慈奉宸旨. 會徒衆. 遍於閭閻. 物色求之. 有一小郎子. 眉彩秀麗. 靈妙寺之東北路傍樹下.....(중략).....於是肩輿而入見於王. 王敬愛之. 奉爲國仙.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 (『三國遺事』 권3)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흥륜사(興輪寺)의 승려인 진자(眞慈)가 미륵상 앞에서의 발원으로 미륵이 직접 미시랑(未尸郎)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왕이 그를 국선(國仙)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통해 볼 때, 진자는 화랑도와 관련한 승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자의 발원은 현재 도솔천의 미륵에게 현신의 몸으로 하생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앙의 복합적인 면을 엿 볼 수 있다. 또 신라의 미륵사상과 화랑도와의 관계는 진자가 미륵선화를 만나러 간 곳이 웅천(熊川 : 현재의 공주)의 수원사(水願寺)라는 것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지왕대의 공주(公州)는 백제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백제의 미륵사상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듯 하다. 즉 백제의 미륵사상과 관련한 유적으로 미륵사지가 있는데, 익산(益山)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삼국유사』<sup>11)</sup>의 내용을 살펴 볼 때 백제의 미륵사상은 미륵하생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의 내용으로 보면 신라의 미륵하생사상은 백제 미륵하생사상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으리라는 것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sup>12)</sup>

신라는 진흥왕대에 와서 특히 영토확장과 더불어 삼국과 갈등관계가 심화되었던 시기로 혼란하고 불안한 시기에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사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계율을 강조하는 미륵상생사상과 미륵하생사상과 관련한 전륜성왕사상을 내세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륵이 하생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와 이상적인 국가를 통치하는 전륜성왕의 출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sup>13)</sup> 따라서 진흥왕 자신이 곧 전륜성왕과 같다는 전륜성왕사상과 결합한 미륵하생사상이 성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언급한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미륵선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11) 『三國遺事』 券2, 「武王」條.

12)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社, 1983, pp.74~92. 참조.

13) 「佛說彌勒下生經」참조.

볼 때 화랑도와 미륵의 관계<sup>14)</sup>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화랑이 미륵의 화생(化生)이라기 보다는 용화정토(龍華淨土)를 만들기 위한 전사(戰士)로서의 용화향도(龍華香徒)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설미륵대성불경』에서 전륜성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그때 양거라는 전륜성왕이 있을 것인데 4군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32상을 지녔고 또 혼자서 천명을 이기는 용맹 단정한 천명의 아들이 있어 모든 원수와 적은 그들 앞에 스스로 굴복하게 될 것이다.<sup>15)</sup>」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양거라는 전륜성왕에게는 군대 이외에 혼자서 천명을 이길 수 있는 천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바로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세계의 전사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화랑도를 미륵신앙과 관련하여 볼 때 화랑도의 성격을 유추해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고신라의 미륵사상은 계법과 계율을 강조하는 미륵상생사상과 보다 현실적인 미륵하생사상이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륵사상의 복합적인 전개 양상으로 인해 6~7세기에는 반가사유상이 조상되고, 7세기에 이르러 미륵여래상이 조상되는 사상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4) 金煥太선생은 「三國時代의 彌勒信仰」 『韓國彌勒思想研究』(佛敎文化研究院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pp.45~52) ; 同著, 「新羅 眞興大王的 信佛과 그 思想 研究」 『佛敎學報』 第5輯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 1967, pp.14~19)을 통해서 『三國遺事』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條에 언급된 미륵선화가 미륵이 화랑으로 화생한 것으로 화랑의 국선이 곧 미륵이라는 미륵사상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15) 축역한국대장경<sup>2)</sup>, 방등부(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1169.

其國爾時有 轉輪聖王. 名曰 穰去. 有 四種兵不以 威武治 四天下. 具 三十二大人相好. 王有 千子. 勇猛端正怨敵自伏.

「佛說彌勒大成佛經」 p.429(『新修大藏經』 券4)

## 2. 통일신라(統一新羅)

신라는 삼국을 통일을 하면서 왕권을 정비하고 대외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통일신라는 문화 뿐 만 아니라 불교문화도 한층 더 국제적인 불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불교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미륵사상 또한 고신라의 미륵사상 보다 좀더 진진된 사상이 가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의 미륵사상과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는 중국·인도 구법유학승(求法留學僧)으로 부터 전래되어 온 유가사상(瑜伽思想)이라 할 수 있다.

유가유식(瑜伽唯識)은 인도의 부파불교시대시대(部派佛教時代)<sup>16</sup>부터 선정(禪定)을 닦는 부류로 존재하다가 중관학과(中觀學派)에 이어 4세기말에 유가행파(瑜伽行派)가 크게 대두되었다. 유가(瑜伽)는 ‘상응(相應)’의 의미로 유가행(瑜伽行)의 줄인 말이다. 즉 불교의 진리를 깨닫는 수행방법으로서의 선정을 말한다.

또한 유식(唯識)은 유가학과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유가와 함께 유가유식이라 쓰기도 한다. 유식의 내용은 사물이나 사건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유식관을 닦아서 식을 지혜로 만드는 것이다. 주요 경전으로는 미륵의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해심밀경(海深密經)』 있고, 대표적인 논설로는 무착(無着)의 『섭대승론(攝大乘論)』과 세친의 『삼십유식론(三十唯識論)』 등이 있다.

이러한 유가유식은 5세기말부터 6·7세기에 걸쳐 중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세 번의 역경(譯經)을 거치고 있는데, 그 한역경전에 따라 종파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500년경 보제유지(菩提流支)의 『십지경론(十地經論)』의 한역에 따른 지론종(地論宗), 550년경 진체(眞諦 :499~569)의 『섭대승론』의 한역에 따른 섭론종(攝論宗)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650년경 현장

---

16) 불교교리의 발전과정은 원시불교(초기불교) - 부파불교 - 대승불교(중관학과 ; 유가행파)로 전개되는데, 이러한 각 시기의 불교는 전한 명제 때부터 그 시기별로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래되었다.

(玄奘)의 『成唯識論』과 『유가사지론』의 한역에 따른 법상종(法相宗)의 성립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sup>17)</sup> 유가유식은 그 신앙으로서 미륵신앙을 동반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착(無着)이 도솔천의 미륵보살로부터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더불어 유가유식은 신라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고 8세기 전반에는 신라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8세기 전반에는 백제에 유행하던 유가사상이 경흥(憬興)에 의해 신라로 전해지게 되었다. 문무왕(文武王)의 유언으로 신문왕의 국노(國老)가 된 경흥은 백제 유민으로 웅천인(熊川人 : 현재의 公州)으로, 그가 국노가 된 것에는 백제지역을 회유하고자 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sup>18)</sup>

이 시기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유가계 불교와 신라 왕실과 관련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문무왕대에 지의법사(智義法師)가 문무왕 곁에서 자문을 하고, 효소왕대에는 도증(道證)이 당에서 돌아와 천문도(天文圖)를 바쳤다.<sup>19)</sup> 도증은 원측(圓測)의 제자이고 또 그의 제자는 태현(太賢)이다. 이들에 의해 원측의 서명학과계 유식사상이 신라에 유행하게 된다. 또한 입당(入唐) 사실이 있는 6두품 출신의 김지성(金志誠)은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가 말년에 감산사에 미륵불상을 금당(金堂)에 주불(主佛)로 안치하였으며, 유가계의 주요 논저인 『유가사지론』을 애독하고 있어서<sup>20)</sup> 일반귀족들에게도 유가계통의 불교가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덕왕대에는 태현과 표훈 등이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태현은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 등 많은 유가유식 계통의 저술로 명성을 떨쳤으며, 대궐에서 『金光明經』을 강경하기도 하였다.<sup>21)</sup> 표훈은 경

17) 吳亨根, 「新羅瑜伽思想의 展開와 彌勒信仰」 『韓國彌勒信仰研究』, 佛教文化研究院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pp.67~69.

18) 金福順, 「8·9세기 신라 瑜伽系 佛教」 『韓國古代史研究-8·9세기의 新羅와 渤海-』, 한국고대사연구회, 1992, pp.37~38.

19) 『三國史記』 卷8, 「孝昭王元年八月」條.

20) 『三國遺事』 卷3, 「南月山」條.

21) 文明大 선생은 「新羅 法相宗의 成立과 그 美術」(下)(『歷史學報』 63, 1975, pp.153~156)을 통하여 道證에서 太賢으로 이어지는 법상종을 신라법상종 또는 유

덕왕대에 대덕을 지낸 인물로 유가사찰인 황복사(皇福寺)의 승려로서 경덕왕의 소원을 들어주어 만월부인이 해공왕을 낳게 하는 데 역할을 한 인물이다.

8세기를 전후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광덕(廣德)과 엄장(嚴莊), 노힐부득(努矜夫得)과 달달박박(怛怛朴朴), 옥면(郁面)의 서방정토로의 구법열(求法熱)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중에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에서 노힐부득이 미륵불화(彌勒佛化)하는 내용이 있는데 미륵사상이 일반신앙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유가계의 불교가 주로 왕실과 관련하였다가 8세기를 전후하여 아미타사상인 서방극락사상과의 경쟁관계에서 밀린 결과로 보여진다.

8세기의 유가계불교는 진표(眞表)에 의한 활동의 계기로 경덕왕대에 법상종이 확립이 되고 널리 전파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sup>22)</sup> 진표는 법상종의 개조(開祖), 또는 점찰교법(占察教法)의 확립자이며 참회(懺悔)불교를 집대성한 개조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sup>23)</sup> 또 진표는 완산주(完山州 : 현재의 전주)인으로 그의 아버지가 진내말(眞乃末) 즉 5두품에 해당하는 내마(奈麻)신분의 향리로서 대대로 사냥을 하고 살았던 지방의 유력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생각된다.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백제인이라고 되어 있어 원래 백제의 고위 중앙귀족의 후예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sup>24)</sup>

진표는 금산사에서 10년간 수학한 후 지장보살로부터 계(戒)를 받고, 미륵보살에게서 간자(簡子)를 받은 후 수행의 감을 얻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살이 응현(應顯)한 것으로 추앙 받았다. 그의 포교활동은 지역적으로 그의 고향에서부터 먼 국경까지 계층별로는 일반천민으로부터 중앙의 권력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한 포교를 하였다.

---

가중으로 부를 수 있고, 7세기 말에서 8세기초까지는 이 宗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22) 金福順, 앞의 논문, pp44~47. 참조.

23) 金煥遂, 「五教 兩宗에 대하여」 『진단학보』 8, 1937. ; 金煥泰,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佛教學報』 9, 1972.

24) 李基白,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p.267.

진표는 다른 유가승들과 달리 몇 가지 점에서 그가 신라 법상종의 개조로 인식되고 있다.

첫째, 계율을 강조하는 점으로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100년이 지나면서 유가승들의 교학과 교리 위주의 불교로 치닫는 데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진표는 점찰참회계법(占察懺悔戒法)의 보급을 실행하여 새로운 계법을 통한 작선(作善)과 이타(利他)를 보이고 있다.

둘째, 유가승들이 해야 할 사회적인 활동을 부각시킨 점이다. 공허한 교리연구에 빠져 있던 유가승에 대하여 불도를 이루려는 참회행을 강조하고, 권력에 밀착되어 있던 승려들에 대한 경중으로, 일반서민은 물론 용의 권속과 소·물고기로 비유되는 소외계층에게도 계를 줌으로써 유가승들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한 점이다.

셋째, 당시의 여러 고승들과는 달리 진표는 저술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송고승전』에 까지 입전되고 있다. 또한 그가 금산사를 떠나 금강산에서 일생을 보낸 것과 그의 제자들이 산문(山門)의 조(祖)가 되었다는 것은 법상종 사찰이 산악으로의 이동이라는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그의 참법(懺法)이 『점찰경』을 매개로 하였다는 점이다. 신라 재래의 점찰법회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신라 재래의 기풍을 이으면서 새로운 참법을 진작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진표(眞表)-영심(永心)-심지(心地)는 신라 하대 법상종 계통의 승려로서 그들이 있었던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가 고려시기까지 법상종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들의 계통을 잘 전승해주었다는 것이다.<sup>25)</sup>

---

25) 金福順, 앞의 논문, pp.46~47.

### Ⅲ. 미륵도상(彌勒圖像) 성립의 근거

현재까지 한국 고대(古代) 미륵상(彌勒像)으로 추정되는 상은 반가사유상과 4구의 미륵상이 전해지고 있다.<sup>26)</sup> 각각의 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륵도상으로서의 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륵의 도상적 근거로 들 수 있는 소의경전인 『미륵삼부경(彌勒三部經)』으로는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불설미륵하생경(佛說彌勒下生經)』, 『불설미륵대성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 등이 있다. 혹은 이를 줄여서 상생경(上生經), 하생경(下生經), 성불경(成佛經)이라고도 한다.

『불설관미륵보살도솔천상생경』의 내용은 석가불(釋迦佛)의 제자 아일다(阿逸多 : 彌勒)가 죽은 뒤에 도솔천에 왕생(往生)하게 되고, 미륵이 왕생한 도솔천의 현상(現狀)을 설하고 있다. 일반 중생(衆生)들도 계율(戒律)과 십선도(十善道)를 닦게 되면 역시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특히 도솔천왕생신앙(兜率天往生信仰)을 강조하고 있다.

『불설미륵하생경』과 『불설미륵대성불경』의 내용은 56억 7천만년 뒤에 사바세계의 계두성(鷄頭城)에 양거(驤去)라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출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바라문가(婆羅門家)에 미륵이 태어난다. 미륵은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고 출가(出家)한 후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불타(佛陀)가 되어 석가불이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내용이다.

즉, 미륵이 염부제(閻浮提)에서 죽어 도솔천에 왕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은 ‘상생경’이다. 염부제(閻浮提)에 내려와 성불하고 교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은 ‘하생경’과 ‘성불경’으로 이 두 경전을 ‘하생경’이라

26) 현재까지 미륵상으로 추정되는 상은 半跏思惟像, 三花嶺 彌勒三尊像, 斷石山 磨崖如來立像, 甘山寺 石造彌勒菩薩立像, 茸長寺 三層蓮花臺 石造如來坐像 등이 있다.

고도 한다.

미륵신앙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래의 정신적 지도자를 그리며 미륵이 이 세상에 출현해서 세상을 평온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그 시기가 정법(正法), 상법(像法), 계법(季法) 가운데 말법시대(末法時代)에 해당되는 계법시대에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 불교의 말세론이 정리되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불국토사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곳이나 하는 것과 교화 중생을 꿈꾸고 사는 도솔천은 어떤 세계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넷째, 미륵정토(彌勒淨土)인 용화세계(龍華世界)를 만들려면 3보를 믿고 10선을 행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미륵이라 불리는 도솔천의 미륵보살상과 염부제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를 하고 미륵정토인 용화세계를 만드는 미륵불의 도상적인 특징을 관련 경전인 ‘미륵삼부경(彌勒三部經)’의 내용을 들어 그 근거를 찾고자 한다.

## 1.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소의경전

미륵보살은 도솔천을 주관하는 보살로 그와 관련된 소의경전은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다. 이 경전에는 미륵보살과 도솔천에 관련된 이야기를 석가모니가 설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저 때에 세존(世尊)께서 한 음성으로써 백억 다라니문(陀羅尼門)을 말씀하시자 대중 가운데 있던 미륵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백만억 다라니문을 얻었는지라,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의복을 정돈하고 손을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 서 있었다.

저 때에 우바리(優波離)가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께 사루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지난 옛적에 경을 가운데 아일다(阿逸多 : 彌勒)가 이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아일다는 비록 출가하였으나 선정을 닦지 못하고 번뇌를 끊지 못해 범부로서 모든 루(累)를 끊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어느 곳에 태어나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로부터 12년 뒤에 목숨을 마치고 도솔천에 왕생하리라”<sup>27)</sup>」

위의 내용으로 보아 미륵은 아일다(阿逸多)라는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제자였는데, 석가모니는 아일다가 12년 후에 죽어서 도솔천(兜率天)에 왕생(往生)할 것을 설하고 있다. 이는 미륵이 도솔천에 왕생하기 전에는 보통의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전에서는 미륵이 있는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일반 중생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셨다.

“이것을 도솔타천의 10선 보응의 승묘한 복을 누리는 곳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일 내가 세상에 머물러 1소겁 동안 일생보처보살(미륵)의 보응과 10선 과보를 널리 설할지라도 다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너희들을 위해 간략하게 해설 하리라. 만일 비구와 일체의 대중이 있어서 생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나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무상 보리심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와 미륵을 위해서 제자가 되고자하는 이는 마땅히 이러한 관(觀)을 지을지니라. 이러한 관을

27) 축역 한글대장경 [2],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p.1151~1152.

爾時世尊以一音聲。設百億陀羅尼門。設此陀羅尼已。爾時會中有一菩薩名曰彌勒。聞佛所說。應時即得百萬陀羅尼門。即從座起整衣服。叉手合掌住立佛前。爾時優波離亦從座起。豆面作禮而白佛言。世尊。世尊往昔於毘尼中及諸經藏。設阿逸多次當作佛。此阿逸多具凡夫身未斷諸漏。此人命終當生何處。其人今者雖復出家。不修禪定不斷煩惱。佛記此人成佛無疑。此人命終生何國土。佛告波離。諦聽諦聽善思念之。如來應正遍知。今於此眾設彌勒菩薩摩訶薩阿薩阿耨多羅三藐三菩提記。此人從今十二年後命終。必得往生兜率陀天上。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p.418 (『大正新修大藏經』 券4)

지으려고 하는 이는 마땅히 5계와 8계와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정진하여 번뇌 끊기를 구하지 않더라도 10선 법을 닦아, 도솔타천상의 최상으로 미묘한 쾌락을 날날이 생각할지니, 이렇게 관하는 것을 정관(正觀)이라 하느니라” 28)」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5계(五戒), 8재계(八齋戒), 그리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10선도(十善道)을 행하여 정관(正觀)을 세우면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에 왕생하여 그의 제자가 되어 즐거움을 얻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위의 내용은 계(戒)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戒)란 석가모니가 불교도(佛教徒)들의 외도(外道)와 비행(非行)에 대하여 경계(警戒)한 것인데 이를 범할 경우 처벌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 노력에 맡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덕규범(道德規範)이다. 그리고 10선도란 살생(殺生), 투도(偷盜), 사음(邪淫) 등 신업(身業) 과 망어(忘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기어(綺語) 등 의업(意業) 그리고 탐심(貪心), 진심(瞋心), 치심(痴心) 등 십악(十惡)을 멀리하고 10선을 닦아 행하라는 것을 말한다.<sup>29)</sup> 따라서 계율을 지키고 10선을 행하게 되면 누구나 도솔천

28) 축역 한글대장경 ㉒,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1154.

佛告 優波離. 此名 兜率陀天十善報應勝妙福處. 若我住 世 一小劫中廣 說一生補處菩薩報應 及十善果者 不能 窮盡. 今爲 汝等 略而解說佛告 優波離. 若有 比丘及一切大衆. 不厭生死樂 生 天者. 愛 敬無上菩提心 者. 欲 爲 彌勒 作 弟子 者. 當作是觀. 作是觀 者應 持 五戒 八齋具足戒 身心精進不 求 斷結 修 十善法 一一思惟 兜率陀天上妙快樂. 作是觀 者 名爲 正觀.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p.419 (『大正新修大藏經』 券4)

29) 金三龍, 『韓國 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社, 1983, pp.126~128.

十善行은 다음과 같다.

1. 不殺生 : 살생은 自性 중 慈悲佛種을 끊게 한다.
2. 不偷盜 : 도둑질은 自性 중 福德佛種을 끊게 한다.
3. 不邪淫 : 奸淫은 自性 중 淸淨佛種을 끊게 한다.
4. 不忘語 : 忘語는 自性 중 眞實佛種을 끊게 한다.
5. 不兩舌 : 이간질하는 것은 私合性을 깨뜨린다.
6. 不惡口 : 남이 들어 불쾌하고 화낼 말을 하지 않는다.
7. 不綺語 : 때 아닌 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하지 않는다.
8. 不慳貪 : 내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탐내거나 헛된 욕심은 끝없는 죄악의

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미륵이 12년 후에 멸(滅)하여 도솔천에 왕생하는 장면을 설하는 장면으로 미륵보살의 형상을 설하고 있다.

「미륵이 전에 바라나국 겁과리촌의 바바리 대바라문의 집에서 태어난 이후로 12년이 되는 2월 15일에 출생한 고향에 돌아가서 결가부좌(結加趺坐)를 맺고 앉아 멸정(滅定)에 들어갈 것이다. 몸은 자금색이며 광명이 크게 빛나 백천 햇빛과 같아 위로 도솔천에 이르리라. 몸의 사리가 진금으로 부어 만든 형상과 같아서, 동하지도 흔들리지도 아니하여 몸의 광명 가운데에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와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 있어서 글자와 뜻이 환히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모든 인천들이 곧 여러 가지 보배탑을 세워 사리에 공양할 것이니라. 그때에 도솔천 칠보대 안의 마니궁전 위의 사자좌에, 연꽃 위에 홀연히 화생하여 결가부좌(結加趺坐)하고 앉으리라, 몸은 염부단금의 색과 같고 몸의 키는 60유순이며 32상 80종호를 모두 갖출 것이다. 이미 위에는 육계가 있고 머리털은 감유색이며 석가비능가마니보배와 백억만억의 견속가보배로써 천관(天冠)을 장식할 것이다. 그 관에서 백만억의 빛이 나타날 것이며 날날 빛 가운데에는 한량없는 백천화불(百千化佛)이 계셔 모든 보살로서 시자를 삼을 것이다<sup>30)</sup>.....」

---

근본이 된다.

9. 不瞋恨 : 남을 미워하며, 성내며, 시기, 질투, 원한 맺는 일을 하지 않는다.
10. 不愚痴 : 항상 고명한 지도자와 善知識을 찾아서 바른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닦아 어리석음을 버리고 聖人의 道를 믿어 행하여 간사한 말에 속거나 간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0) 축역 한글대장경 ㉔,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1155.

彌勒先於 波羅捺國劫波利村 波婆利大波羅門家 生. 却後十二年二月十五日. 還 本生處 結加趺坐如 入 滅定. 身紫金色光明艷赫如 百千日. 上至 兜率陀天. 其身舍利如鑄金像 不動不 搖. 身圍光中有 首楞嚴三昧般若波羅蜜 字義炳然. 時諸人天即爲起 衆寶妙塔 供養舍利 時兜率陀天 七寶臺內 摩尼殿上 師子牀座 忽然化生. 於蓮花上 結加趺坐. 身如 閻浮檀金色 長十六由旬. 三十二相 八十種好 皆悉具足. 頂上肉髻 髮紺琉璃色. 釋迦毗楞伽摩尼. 百千萬億甄叔迦寶以嚴 天冠. 其天寶冠有 百萬億色. 一一色中有 無量百千化佛. 諸菩薩以爲 侍者.....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p.419 (『大正新修大藏經』 券4)

위의 내용은 미륵이 12년 후에 멸정(滅定)에 들어 도솔천에 미륵보살로 왕생하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다. 도솔천에 왕생한 미륵보살의 형상은 사자좌(獅子座)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sup>31)</sup>로 앉아있고, 키는 60유순(由旬<sup>32)</sup>)이며 32상(相) 80종호(種好)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육계(肉髻) 위에는 보관(寶冠)이 있는데 그 보관에는 백천화불(百千化佛)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도솔천에 왕생한 미륵보살의 모습은 운강석굴(雲岡石窟) 제9굴의 북벽 2층 감실(龕室)의 교각미륵보살상(交脚彌勒菩薩像)(圖1)에 잘 나타나 있다. 사자좌에 교각으로 앉아 있고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손등을 대고 있다. 머리 위의 보관에는 화불(化佛)이 있다. 따라서 이 상(像)이 결가부좌가 아니라 교각좌(交脚坐)를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도솔천에 왕생한 미륵보살을 충실히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염부제의 헛수로 56억만세가 되어야 이에 염부제(閻浮提)로 내려와 태어날 것이니,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에 설한 것과 같다.....(중략).....착하고 착하다. 선남자(善男子)여, 그대는 염부제에서 널리 복업을 닦아 이곳에 태어났구나,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니 이제 이 하늘 임금의 이름은 미륵이다. 너는 마땅히 귀의하라.<sup>33)</sup>」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왕생하여 그곳의 천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56억만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올 것을 설하고 있다. 그리고 ‘미

31) 經典에는 結加趺坐로 하고 있는데, 이는 梵語를 한역한 것으로 結跏趺坐와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32) 梵語로 yojana로 고대 인도의 거리의 단위이다. 원래 소머리에 ‘명예를 붙인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명예를 닦아 걷게하여 명예를 풀때 까지의 거리로 一由旬은 약 7~8km이다.

33) 축역 한글대장경 ②,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p.1155~1156.

閻浮提歲數 五十六億萬歲. 爾乃下 生於閻浮提. 如 彌勒下生說.....(중략).....善哉善哉 善男子. 汝於 閻浮提 廣修 福業 來 生此處. 此處名 兜率陀天. 今此天主名曰 彌勒 汝當歸依.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p.420 (『大正新修大藏經』 券4)

특하생경에 설한 것과 같다(如 彌勒下生經說)’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미특하생경이 미특상생경 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은 지상에서 계율과 10선을 닦아 정관을 세운 선남자가 도솔천에 왕성한 모습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사부 제자와 천, 용, 귀신이 만일 도솔타천에 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이러한 관(觀)을 지어 사유하되, 도솔천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금계(禁戒)를 가져서, 1일에서 7일까지 이르고, 10선을 생각하고, 10선도를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 공덕으로써 회향하여 미륵 앞에서 나기를 원하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관을 지으라. 이러한 관을 짓는 자는 만일 한 천인을 보고 한 연꽃을 보면 한 생각 사이에 미륵의 명호를 부를지라도 이 사람은 1200겁의 생사죄(生死罪)를 소멸할 것이며, 다만 미륵의 명호만 듣고 합장하고 공경하더라도 이 사람은 50겁의 생사죄를 제하여 없앨 것이며, 만일 미륵에게 경례만 하는 자가 있더라도 5백억겁의 생사죄를 소멸하게 될 것이며, 설사 하늘에는 나지 못할지라도 미래세 가운데에 용화보리수 밑에서 또한 만남을 얻어 무상의 도심을 발하리라.<sup>34)</sup>」

이렇게 상생경(上生經)에는 미륵을 만나기 위해 도솔천에 왕생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도솔천에 나지 못하더라도 용화수 아래에서 미륵을 만나 법(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어서 미륵보살이 하생(下生)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사부제자(四部弟子)와 천(天)·용(龍) 등이 도솔천에 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정관(正觀)을 지어준다는 내용에서 미륵보살의 권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34) 축역 한글대장경 2,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1157.

佛告 優波離. 佛滅度後 四部弟子天龍鬼神. 若有 欲生 兜率陀天 者. 當作 是觀 繫念 思惟. 念 兜率陀天 持 佛禁戒. 一日至 七日. 思 念十善行十善道. 以 此功德 廻向願 生 彌勒前 者. 當作 是觀. 作 是觀 者. 若見 一天人 見 一蓮花. 若一念頃稱 彌勒名. 此人除 却千二百劫生死之罪. 但聞 彌勒名 合掌恭敬. 此人除 却五十劫生死之罪. 若有敬 禮彌勒 者. 除 却百億劫生死之罪. 設不 生天 未來世中龍華菩提樹下亦得 值遇 發 無上心.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p.420 (『大正新修大藏經』 券4)

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이 『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에서 미륵보살의 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도솔천의 미륵보살의 모습은 보관을 쓴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보관에는 화불(化佛)이 있다. 또 미륵보살은 권속들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단독으로 나타나 천중들에게 설을 하기도 한다.

## 2. 미륵불(彌勒佛)의 소의경전

미륵불(彌勒佛)은 석가모니 입멸 후 56억 7천만년 후에 도솔천(兜率天)에서 하생(下生)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도(成道)한 후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을 용화삼회설법(龍華三會說法)을 통하여 구제하고, 미륵이 하생한 지상세계를 용화세계로 만든다는 불타(佛陀)이다.

미륵불과 관련한 도상적 근거가 되는 소의경전으로는 『佛說彌勒下生經』, 『佛說彌勒大成佛經』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차 오랜 뒤에 이 국토에 계두(鷄頭)<sup>35</sup>라는 큰 도성이 생길 것이다. 동서가 20유순이요 남북이 7유순이나 되니 토지가 풍족하고 백성이 치성하여 거리와 골목이 줄을 이루리라.....(중략).....저 때에 기후는 화창하고 적당하여 4시의 계절이 순조로우며 사람 몸에는 108가지의 병이 없으며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커지지 아니하고 은근하며 사람의 마음이 평등하여 다 뜻이 같은지라 서로 보면 기뻐하고 착한 말로 서로 대하여 그 언사가 똑 같아서 차별이 없어 마치 저 울단월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 때에 염부제의 백성들은 어른과 아이의 음성이 다 동일하여 여러 가지 차별의 다름이 없으리라. 저 때에 남자나 여자가 대·소변을 보고자 할 때에는 땅이 스스로 열려졌다 도로 합쳐 지게될 것이다. 저 때에 염부제에는 자연히 쌀이 나뉘며 또한 껌질이 없고 극히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먹어도 병들어 고생하는 일

35) 經典에는 翹頭라고 하지만 같은 의미이다.

이 없으리라. 이른바 금은 진보와 자거 마노와 진주 호박 등이 각각 땅에 흩어져 있어도 만지거나 주워 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 때에 백성들이 ‘옛날 사람들은 이 보배로 말미암아 서로 해치다가 붙잡히고 감옥에 갇혀 무수한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이 보배는 기왓장이나 돌 조각 같아서 아끼거나 지키는 사람이 없도다.’ 하리라. 그때에 양커라는 법왕이 나타나서 정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칠보를 성취할 것이니 이른바 칠보(七寶)란 금륜보(金輪寶), 상보(象寶) 마보(馬寶), 주보(珠寶), 옥녀보(玉女寶), 전병보(典兵寶), 수장보(守藏寶) 이니라. 이 염부제를 진압하되 무기를 쓰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모두 행복하게 되느니라.<sup>36)</sup>」

위의 내용은 미륵이 하생 할 때 지상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계두성(鷄頭城)이라는 도성에는 토지가 풍족하고 평화로우며, 금, 은, 보배 등이 땅에 흩어져 그것을 탐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양거(驤去)라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나타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미륵의 출현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두성에 양커라는 전륜성왕이 출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륜성왕이 세상에 나와 통치를 할 때 그와 동시에 미륵이 하생하게 된다. 미륵신앙은 전륜성왕의 신격으로 깊이 결부시켜 미륵은 단순히 미래의 불타라는데 머물지 않고 전륜성왕이라는 이상적인 왕권과 결부시켜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특징으로서 신앙 받게 된다. 미륵이 교각(交脚)과 의좌(倚坐)라는 자세를 취하거나 보관을 붙여 황제의 모습에 비교하거나 하

36) 축역 한글대장경 2,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p.1158~1159.

將來久遠 於此國界當有城郭名曰翹頭。東西十二由旬。南北七由旬。土地豐熟人民熾盛街巷成行.....(중략).....爾時時氣和適四時順節。人身之中無有百八之患。貪欲瞋恚愚癡不 大慳慇。人心均平皆同一意。相見歡悅善言相向。言辭一類無有差別。如彼優單越人 而無有異。是時閻浮地內人民大小皆同一向。無若于之差別也。彼時男女之類。意欲大小便 時地自然開。事訖之後地便還合。爾時閻浮地內自然生 粳米 亦無 皮喪。極爲 香美 食無 患苦。所謂金銀珍寶車乘馬瑙眞珠虎珀。各散在地無 人省錄。是時人民手執 此寶 自相謂言。昔者之人由 此寶 故更相傷害。繫閉在獄受 無數苦惱。如今此寶與 瓦石 同流無 人守護。爾時法王出現。名曰 驤去。正法治化七寶成就。所謂七寶者。輪寶象寶馬寶珠寶玉女寶典兵寶守藏之寶。是謂 七寶。鎮 此閻浮地內。不以 刀杖 自然靡伏。

「佛說彌勒下生經」 p.421(『新修大藏經』 券4)

는 것도 이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sup>37)</sup>

「저 때에 그 임금에게 대신(大臣)이 있어 이름이 수범마(修梵摩)라, 이 임금님이 어렸을 때에 서로 친한 사이라, 임금님이 심히 사랑하고 공경하며.....(중략).....이때에 수범마에게 아내가 있으니 이름이 범마월(梵摩越)이라 하리라.....(중략).....저 때에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부모가 늙지도 젊지도 아니한 것을 관찰하고 문득 몸을 내려 밑으로 응하여 오른편 옆구리로 쫓아 탄생하니, 내가 지금에 오른편 옆구리로 탄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미륵보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며 도솔의 모든 하늘이 각각 큰소리로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서 탄생한 것을 외치느니라. 이때에 수범마는 곧 그 아들을 미륵이라 지을 것이다. 미륵보살은 32상과 80종호가 구족하여 그 몸을 장식할 것이니 몸의 빛은 황금색이리라. 저 때에 사람의 수명이 극히 길고 모든 병이 없어서 모두 수명이 8만 4천세요 여자는 5백세가 된 뒤에 출가하게 되리라.<sup>38)</sup>」

이상의 내용은 미륵이 출생, 즉 하생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미륵이 옆구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싯타르타 태자가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 미륵의 탄생과 석가모니 탄생의 장면이 비슷한 것은 미륵이 석가모니불의 수계(受戒)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륵의 탄생하여 성도(成道)하는 과정이 석가모니의 그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저 때에 미륵보살은 집에 있는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홀연히 집을 떠나 도

37) 宮治 昭, 「巨大佛像の原流-彌勒と毘盧舍那」 『世界の博物館』 19, 講談社, 1984, p.178.

38) 축역 한글대장경 2,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1160.

爾時彼王有 大臣 名曰 修梵摩. 是王少小同好王甚愛敬.....(중략).....是時修梵摩有妻名 梵摩越.....(중략).....爾時彌勒菩薩. 於 兜率天 觀察父母 不老不少. 便降神下應從 右脇生. 如 我今日右脇生 無異. 彌勒菩薩亦復如是. 兜率諸天各各唱令. 彌勒菩薩已降神生. 是時 修梵摩卽如 子立字. 名曰 彌勒. 彌勒菩薩有 三十二相八十種好. 莊嚴其身 身黃金色. 爾時人壽極長無有 諸患. 皆壽八萬四千歲. 女人年五百歲然後出嫡.

「佛說彌勒下生經」 p.421 『新修大藏經』 券4

를 배우리라. 저때에 계두성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용화(龍華)란 도수(道樹)가 있으니 높이는 1유순이요, 넓이는 5백자욱이니라. 때에 미륵보살은 그 나무 아래 앉아 위없는 도를 이루리니 그 밤중을 당하여 미륵이 집을 떠난 그 바로 밤에 무상도(無上道)를 이룰 것이다. 그때에 삼천대천세계가 6중으로 진동하여 저절로 미륵의 성불을 알리리라. 그 소리가 굴러 사왕천궁에 들리어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 하고, 자꾸 퍼져 33천과 염마천과 도솔천과 화락천과 타화자재천과 내지 범천까지 전하여지리라.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룰 때에 마왕이 있어 이름을 대장(大將)이라 하리라. 법으로써 다스리고 교화하다가 여래의 이름이 메아리치는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 날뛰며 어쩔 줄을 몰라 칠일 동안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때에 마왕은 욕계(欲界)의 무수한 천인들을 거느리고 미륵불 계신 곳에 이르러서 공경 예배하리라.39)」

위의 내용은 미륵이 출가(出家)해서 성도(成道)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미륵이 출가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세상의 무상도(無上道)를 이루어 성도하고 대장이라는 마왕(魔王)이 미륵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다. 이러한 성도과정의 내용은 석가모니 성도 과정과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일찍 있지 아니하였던 일이라 찬탄하고 수가 없는 백천 중생은 모든 진구(塵垢)를 모두 버리고 법안(法眼)이 청정함을 얻을 것이며 혹 어떤 중생은 가섭(迦葉)의 몸을 보게 되리라. 이미 이것을 최초의 법회라 이름하나니 96억인이 다 아라한이 될 것이다.....(중략).....미륵

39) 앞의 책, p.1160.

爾時彌勒在家未經 幾時. 便當 出家學道. 爾時去 翅頭城 不遠有 道樹 名曰 龍華. 高一由旬廣五百步. 時彌勒菩薩坐 彼樹下成 無上道果. 當其夜半 彌勒出家. 卽於 其夜成 無上道. 時三千大千刹土六返震動. 地神各各相告曰. 今時彌勒已成佛. 轉至聞 四天王宮. 彌勒已成 佛道. 轉轉聞徹 三十三天. 豔天. 兜率天. 化自在天. 他化自在天. 聲聞展轉至 梵天. 彌勒已成 佛道. 爾時魔王名 大將. 以法治化. 聞 如來名音聲之聲. 歡喜踊躍不能 自勝. 七日七夜 不眠不寐. 是時魔王將 欲界無數天人至 彌勒佛所. 恭敬禮拜.

「佛說彌勒下生經」 p.421(『新修大藏經』 券4

불의 제2회 법회에서는 94억인이 모두 아라한이 되리라.....(중략).....또 미륵불의 제3회 법회에서는 92억인이 아라한이 되리라.40)」

미륵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를 한 이후 용화삼회설법(龍華三會說法)을 통하여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최초 설법에서는 96억인, 2회 설법에서는 94억인, 마지막 3회 설법에서 92억인이 구제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미륵이 하생함과 동시에 지상세계는 도솔천의 용화세계가 되고 3회 설법을 통하여 구제된 중생들이 지상용화정토에서 미륵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불설미륵대성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에서는 미륵이 하생하여 출가하는 과정과 성도하는 과정을 더욱 구체적을 묘사하고 있는데, 『불설미륵하생경(佛說彌勒下生經)』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리불아, 그때에는 4해의 수면이 3천유순이나 줄게되고 염부제의 땅은 길이와 폭이 만유순이나 되며 유리 거울처럼 평평하고 깨끗할 것이다. 또 <뜻 맞는 꽃>과 <마음 즐겁게 하는 꽃>, <지극히 향기로운 꽃>, <우담바라 꽃>, <큰 금잎 달린 꽃>, <하얀 은잎으로 된 꽃>들이 피어 있는데, 꽃술은 하늘비단처럼 곱고 연하여 열매는 상서로운 기운과 온갖 향기와 진기한 맛을 지닌 것이며 하늘 솜처럼 부드러우리라. 우거진 숲에는 나무와 꽃이 만발하고 맛있는 열매가 아름답고 묘하게 열려있고 나무들의 높이가 30리나 되는 광대한 숲이 (도솔천) 환희원 동산보다 훨씬 좋으리라.41)」

---

40) 앞의 책, p.1162.

是時諸人見 是事 已歎 未會有. 無數百千衆生. 諸塵垢盡得 法眼淨. 或復有 衆生見 迦葉身已. 此名爲 最初之會. 九十六億人皆得 阿羅漢.....(중략).....彌勒佛第二會時. 有 九十四億人. 皆是阿羅漢.....(중략).....又彌勒第三之會. 九十二億人. 皆是阿羅漢.1)」  
「佛說彌勒下生經」 p.422 (『新修大藏經』 券4)

41) 앞의 책, p.1166.

舍利佛. 四大海水面各減少三千由旬. 時閻浮提地縱廣正等十千由旬. 其地平淨如 琉璃鏡. 大適意華. 悅可意華. 極大香華. 優曇鉢華. 大金葉華. 七寶葉華. 白銀葉華. 華鬚柔軟狀如 天繒. 生 吉祥菓. 香味具足軟如 天綿. 叢林樹華甘果美妙極大茂盛. 過 於帝釋歡喜之園. 其樹高顯高三十里.

「佛說彌勒大成佛經」 p.429(『大正新修大藏經』 券4)

미륵이 하생한 지상이 용화세계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도솔천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미륵이 설하는 용화삼회설법 이후의 지상낙원(地上樂園)을 이야기한 것이다.

「저 때 미륵보살은 세간 중생들이 5욕의 죄악과 근심으로 고통을 받고 생사의 고행에 빠져 해매는 모습을 보고 심히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어 모든 것이 다 괴롭고 헛되고 덧없는 이치를 관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속 명리를 즐기지 아니하고 속된 살림을 싫어하며 감옥처럼 여길 것이다.42)」

위의 내용은 미륵이 출가하기 전 지상세계 중생의 괴로움과 헛됨을 알고 고뇌하는 장면이다. 이것은 싯타르타 태자가 중생들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고민을 하던 중에 출가를 하게되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다.

「이 계승을 읊고 곧 출가하여 금강장엄도장(金剛莊嚴道場)인 용화보리수 아래 앉아 도를 닦을 것인데, 그 나무가지는 보배용처럼 백가지 보배꽃을 토할 것이다. 그 꽃잎들은 일곱가지 보배빛을 내고 각각 다른 빛깔의 열매가 여러 중생들의 뜻을 맞추어주는데, 그 기묘함은 하늘·인간 어디에도 비길 수 없으리라. 나무의 높이는 50유순이고 나무가지와 앞에서는 찬란한 빛을 발산할 것이다. 미륵보살이 출가할 적에 많은 바라문을 이끌고 용화도랑에 가면 저절로 머리털이 깎아져서 집을 잊고 도를 닦을 것인데, 이른 새벽에 집을 나와 그날 초저녁에 4마를 행복시키고 무상보리를 이룬 뒤 계승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43)」

---

42) 앞의 책, p.1171.

爾時彌勒諦觀 世間五欲過患. 衆生受苦沈 沒長流. 在 大生死甚可 憐愍. 自以 如是正念 觀察苦空無常. 不樂在家. 厭 家迫迕 猶如牢獄.  
「佛說彌勒大成佛經」 p.429(『新修大藏經』 券4)

43) 앞의 책, p.1172.

設 此偈 已. 出家學道. 坐 於金剛莊嚴道場龍華菩提樹下. 枝如 寶龍吐 百寶華. 一一花葉作 七寶色. 色色異果適 衆生意. 天上人間爲無有此. 樹高五十由旬. 枝葉四布放

미륵이 출가를 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도를 하고 미륵불 성도를 알리는 찬란한 7가지 빛이 발산하는 장면과 4종류의 마왕(魔王)을 항복시키는 장면이다. 마왕들을 항복시키는 장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석가모니가 성도(成道)시에 마왕을 항복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미륵불의 소의경전인 『불설미륵하생경』과 『불설미륵대성불경』을 분석하여 미륵여래상의 도상적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여래상의 소의경전과 달리 구체적인 도상을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어 도상적인 근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륵의 탄생, 성도, 입멸의 장면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유사한 점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미륵의 소의경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미륵상의 구체적인 도상 분석은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

大光明。爾時彌勒與八萬四千婆羅門俱詣道場。彌勒卽自剃髮出家學道。早起出家。卽於是日初夜降四種魔。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卽設偈言。  
「佛說彌勒大成佛經」p.430 (『新修大藏經』券4)

## IV. 신라(新羅) 미륵상(彌勒像)의 도상(圖像) 분석

신라의 미륵상은 크게 미륵보살상과 미륵여래상으로 나뉘어 진다. 미륵보살상은 고신라 6~7세기에 반가사유상이 집중적으로 조상되고 통일신라기에는 일반적인 보살상의 형태인 미륵보살상이 조상되어졌다. 그리고 미륵여래상은 고신라 시기에 조상되었지만 미륵보살상에 비해 조상된 수가 적다. 그것은 고신라대에는 미륵상생신앙이 크게 유행하였고, 삼국시대 말기에 왔어야 미륵상생신앙보다는 미륵하생신앙 좀더 강세를 보인 결과로 보여진다.

본 장에서는 신라의 미륵상중에서 크게 미륵보살상과 미륵여래상으로 나누어 그 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신라 미륵보살상의 도상(圖像) 분석

신라의 미륵보살상은 크게 반가사유상과 일반 보살형인 미륵보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신라대에는 일반 보살형이 아닌 반가사유상이 많이 조상되었는데 그 도상적인 근거는 중국 북제기(北齊期)의 반가사유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미륵상생신앙이 유행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통일신라대에 들어서면서 미륵보살상의 도상은 일반 보살상의 형태의 모습으로 조상되었다. 조상적인 배경은 미륵상생신앙이지만 절대 왕권과 관련한 유가사상이 결합된 성격으로 고신라대의 미륵보살상과는 성격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신라시대에 조상되었던 미륵보살상의 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신라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

삼국시대 보살상 연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왔던 것으로는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을 들 수 있다. 반가사유상에 대한 연구는 존명문제(尊名問題)와 제작지(製作地) 문제, 특히 국보 78호(圖2)와 국보 83호 반가사유상(圖3)을 중심으로 그 문제가 논의 되어왔다. 그러나 앞의 두 구의 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선학(先學)들간에 조금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44)</sup>

본 글에서는 국보 78호와 83호 반가사유상에 대한 문제는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무리가 있어 그에 대한 것은 선학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비교적 국적이 분명한 신라 반가사유상으로 중심으로 도상적인 분석으로 통해서 미륵보살상과 반가사유상의 관계를 유추하는 것을 그 중심으로 삼고자 한다.

반가사유상은 인도에서는 태자상으로 조상되었고 중국에서도 태자상으로 조상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북제(北齊)때 이르러 용화수(龍華樹) 아래의 반가사유상으로 조상되는 것으로 보아 미륵보살로서의 반가사유상이 조상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북제(北齊) 천보3년명(天保三年銘 : 552) 수하미륵오존상(樹下彌勒五尊像)(圖4)의 뒷면(圖5)에는 앞면과 같이 좌우 대칭의 용화수가 둥근 반월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나무 아래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다. 앞면의 상이 의좌형의 미륵상과 좌우에 나한상과 보살상이 조상되어 있으므로 뒷면의 반가상은 태자상이 아니라 미륵상으로서의 반가사유상임을 알 수 있다.

북제 때 조상된 수하보살병립상(樹下菩薩並立像)(圖6)의 뒷면(圖7)에 선

---

44) 국보 78호와 국보 83호 半跏思惟像을 모두 신라작으로 보는 견해는 黃壽永, 『韓國文化史大系』 4 風俗·藝術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0)와 文明大, 『韓國彫刻史』 (悅話堂, 1980)를 참조할 수 있고, 국보 78호를 백제작으로 보는 견해는 金理那, 「三國時代 佛像樣式研究의 諸問題」 (『미술사연구』 2, 미술사연구회, 1988), 고구려작으로 보는 견해는 姜友邦, 「金銅日月蝕三山冠思惟像」 (『圓融과 調和』, 悅話堂, 1996)을 참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보 83호를 백제작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姜우방, 「金銅三山冠思惟像」 (앞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각에 가까운 부조로 조상된 반가사유상의 경우 마니보주(摩尼寶珠) 형태의 조그만 대좌 좌우로 사자가 표현되어 있고, 그 위로 나무 아래에 반가사유상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반가사유상의 앞쪽 아래에는 천중(天衆)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불설관미륵보살도솔천상생경』에서 설하는 바와 같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왕생하여 도솔천의 천중들에게 설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sup>45)</sup>

북제 후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수하사유오존상(樹下思惟五尊像)(圖8)은 북제 초기 작품인 천보3년명 수하미륵오존상(圖4)의 본존상과 비교해 볼 때 천보3년명은 정면관을 하고 있는 반면 수하사유오존상의 경우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천의 자락 또한 한층 부드럽고 가볍게 표현하고 있어서 북제 초기 작품인 천보3년명 보다는 후대인 북제 후기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상적으로 볼 때 수하사유오존상의 경우는 천보3년명의 미륵본존상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 반가사유상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위의 작품으로 보아 반가사유상이 미륵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을 비교하면 앞면에 미륵불이 배치될 경우는 뒷면에 사유상을 두고, 앞면에 사유상을 둘 경우는 미륵불이 제외된다. 이것은 분명히 미륵불과 사유상의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6)</sup>

중국 북제때 이르러 같이 반가사유상이 미륵보살상으로 조상되었고 그 도상을 받아들인 신라에서도 미륵보살상으로서 반가사유상이 조상되기 시작하였다. 반가사유상의 조상이 유행한 시기는 삼국시대, 특히 6~7세기

45) 彌勒先於 波羅捺國劫波利村 波婆利大波羅門家 生. 却後十二年二月十五日. 還 本生處 結加趺坐如 入 滅定. 身紫金色光明艷赫如 百千日. 上至 兜率陀天. 其身舍利如鑄金像 不動不 搖. 身圍光中有 首楞嚴三昧般若波羅蜜 字義炳然. 時諸人天即爲起 衆寶妙塔 供養舍利 時兜率陀天 七寶臺內 摩尼殿上 師子牀座 忽然化生. 於蓮花上 結加趺坐. 身如 閻浮檀金色 長十六由旬. 三十二相 八十種好 皆悉具足. 頂上肉髻 髮紺琉璃色. 釋迦毗楞伽摩尼. 百千萬億甄叔迦寶以嚴 天冠. 其天寶冠有 百萬億色. 一一色中有 無量百千化佛. 諸菩薩以爲 侍者.....

「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p.419 (『大正新修大藏經』 券4)

46) 姜友邦, 「傳 夫餘 出土 蠟石製佛菩薩並立像」 『考古美術』 제138·139호, 韓國美術史學會, 1978 ; 姜友邦, 「傳 夫餘 出土 蠟石製佛菩薩並立像」, 『圓融과 調和』, 悅話堂, 1996, p.136.

집중되어 제작되어졌다. 그러나 삼국 중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불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반가사유상의 조상 예는 두 나라(고구려·백제)의 작품보다 비교적 많다는 사실에 눈 여겨 볼 만 한다.

이렇게 신라에 미륵보살상으로서 반가사유상이 비교적 많이 조상된 것은 고구려에서는 무량수불과 미륵신앙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이유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고, 백제는 미륵상생신앙보다 미륵하생신앙이 더 강하게 그 신앙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느 정도 신라 작품으로 규정되어 지고 있는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그 현상과 도상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신라의 반가사유상 중 주요작품으로는 석조상으로는 경주 송화산(松花山)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단석산(斷石山) 신전사(神仙寺) 마애반가상, 봉화 북지리(北枝里) 출토 석조반가사유상 등이 있다. 금동상(金銅像)으로는 안동 옥동 출토 반가사유상, 양산군 물금면 출토 반가사유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금동상은 이동이 용이한 관계로 제작지 논란이 있어 석조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 (1) 경주 송화산(松花山) 출토 반가사유상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전시되어 있는 송화산 반가사유상은 1909년 關野貞 일행에 의하여 경주 송화산 금산재(金山齋)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그 후 1930년에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고적도보해설(朝鮮古蹟圖譜解說)』 3책 20 「서악리발견석조미륵보살상(西嶽里發見石造彌勒菩薩像)」 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명치(明治) 42년 부내면(府內面) 서악리(西嶽里) 각간묘(角干墓)가 존(存)하는 산의 동악 진중(畑中)에서 발견<sup>47)</sup>」

47) 黃壽永, 「新羅半跏思惟像」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90, p.289.

본 상(圖9)은 머리와 양팔이 결실되어 있고 나신에 가까운 상체는 짧고 허리는 비교적 굵다. 가슴은 조금 나오게 표현하고 왼쪽 어깨 위에는 보발(寶髮)의 일부인 듯한 표현이 있다. 허리 밑으로는 상의(裳衣)를 걸치고 있는데 왼쪽 다리의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U자형 주름이 늘어지고 있다. 그리고 왼쪽 발은 족좌(足座) 위에 올려져있다. 반가한 오른쪽 다리에는 음각선으로 주름을 표현하고 있다. 두 팔은 없으나 오른쪽 무릎 위에는 팔을 고였던 자리가 남아 있고 왼손은 반가한 발목을 잡고 있다. 늘어진 상의 끝은 ㄷ자형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보 78호나 83호의 형상과 유사하지만 족좌에 올려진 왼쪽 다리의 U자형 옷주름에서 78호(圖2)의 옷주름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이외에는 83호(圖3)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가한 오른쪽 다리에 표현된 사선형의 옷주름이나 율동적이면 위로 오르는 듯한 상의 표현에서 83호에서 보이는 옷주름과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sup>48)</sup>

## (2) 단석산(斷石山) 신선사(神仙寺) 마에반가사유상

단석산 ㄷ자형 마에조상군 중 북쪽 암벽 중 서쪽 암벽 상단에 동쪽으로 부터 반가사유상, 여래입상, 보살입상, 여래입상 순으로 4구가 조각되어 있다. 이 중 마에반가사유상(높이 1.1m)(圖10)은 평면 부조로 조각한 마에 조각상으로 둥근 원형두광에는 아무런 장식문양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머리에는 삼산관 보관을 썼으며 얼굴에는 미소를 살짝 머금은 듯 하다.

오른쪽 팔꿈치는 반가한 오른쪽 다리 위에 올리고 다시 팔을 올려 오른쪽 손가락을 뺨에 살짝 대고 있다. 왼쪽 손은 반가한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있다. 삼도의 표현은 없으며 상반신은 나신(裸身)에 가깝고 목에는 반원의 목걸이 장식이 보인다.

48) 朱秀浣 先生은 「新羅 石造半跏思惟像 研究」(『佛敎美術研究』3·4號 合輯, 東國大學校 佛敎美術文化財研究所, 1997)을 통해서 松花山 石造半跏思惟像에서 보이는 왼쪽 다리의 U자형 옷주름이나 裳懸 처리에서 국보 78호와 비교될 수 있고, 송화산 석조반가사유상 또한 78호와 같이 塔形의 寶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허리 밑의 상의는 옷주름 표현이 거의 보이지 않고 반가한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윤곽선만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가사유상의 왼쪽 발은 족좌 위에 올려진 반면, 단석산 신선사 반가사유상은 연꽃대좌 위에 올려져있다.

단석산 신선사 마애반가사유상은 전체적인 이미지와 대좌의 표현으로 보아 충남 서산마애불(瑞山磨崖佛)(圖11)의 반가사유상과 비교할 만하다. 그러나 서산마애불의 반가사유상의 두광은 이중의 원형에 연꽃 문양이 있는 반면 단석산 신선사 반가사유상은 원형 두광에 아무런 장식이 없다.

또 서산마애불 반가사유상의 보관은 화려하게 표현하여 그 보관이 국보 78호와 비교되지만, 단석산 신선사 반가사유상의 보관은 국보 83호와 같은 단순한 삼산관으로 표현하고 있다.

### (3) 봉화(奉化) 북지리(北枝里) 석조반가사유상

이 반가사유상은 1965년 경북 봉화국 물야면(勿野面) 북지리에서 발굴되었던 것으로 현재 경북대학교 박물관 별관에 전시되어 있다.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사유상은 허리 위쪽 상반신이 결실 되어있는데 현재 높이는 175cm의 거상(巨像)으로 추정복원 높이는 250cm에 달할 것으로 여겨진다.(圖12) 이 반가사유상의 특징은 다른 반가사유상에 비해 규모가 큰상임도 불구하고 세부 표현이 정교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그 부드러움 속에 묵중한 처리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표현에서 영주(榮州) 가흥리(可興里) 마애삼존불상(磨崖三尊佛像)(圖13)의 부드럽고 묵중한 표현기법과 비교할 만하다.

상체가 결실되어 전체적인 표현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허리 아래 부분으로 볼 때 국보 83호와 거의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반가한 오른발은 국보 83호 상보다 과장된 듯 하고 정강이 부분의 옷주름은 짧은 호를 그리며 표현되어 아랫쪽의 상의(裳衣)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 표현된 U자형 옷주름과 상의 표현 또한 83호 상의 옷주름과 유사하지만 도식화 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지리 반가사유상은 그 모본을 국보 83호상에 두고 있다. 국보 83호상의 상의는 자연스럽고 불규칙적으로 흘러내리는 반면, 북지리 반가사유상은 규칙적이고 묵중하며 큼직하게 흘러내고 있다. 이러한 옷주름의 처리는 앞서 언급한 영주 가흥리의 마애불상 본존(圖13) 옷주름 처리에 나타난 기법과 통한다. 가흥리 마애불 역시 부드러운 옷주름의 처리를 표현하면서 묵직한 선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요소는 영주·봉화지역에서 유행하던 이 시기의 특징적인 조각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9)</sup>

위와 같이 신라의 반가사유상(특히 석조반가사유상)을 비교한 결과 국보 78호상 보다는 국보 83호상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중국 북제시기에 조상된 반가사유상과 도상을 비교하여 볼 때 그 도상적인 근원은 중국에 있고 태자상의 형상으로 제작되었지만 그 성격은 미륵보살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 2) 감산사(甘山寺) 석조미륵보살입상(石造彌勒菩薩立像)

감산사는 경주시 내동면 신계리에 위치한다. 등도해치랑(藤島亥治郎)의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에 의하면, ‘대정4년(大正四年 : 1930) 3월에 아미타여래상(阿彌陀如來像)과 미륵보살상(彌勒菩薩像)을 발굴하고 조선총독부 시정(始政)5주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할 때 그곳의 특설미술관을 장식하기 위하여 파물창(波勿彰), 말송웅언(末松熊彦) 두 사람이 미술관으로 옮겼으며 공진회가 끝난 뒤 특설미술관은 총독부 박물관이 되었고 이 두 상은 그대로 남아 전시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 후 아미타여래상과 미륵보살상은 현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전시되어 있다. 이 두 상의 뒷면에는 각각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제작연대와 제작동기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앙경향까지도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조각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석조미륵보살입상으로 석조아미타여래

49) 朱秀浣, 앞의 논문, pp.162~163.

입상은 제외하고자 한다.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관련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절은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20리 가량 되는 곳에 있다. 금당주미륵존상화광(金堂主彌勒尊像火光) 후기(後記)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원(開元) 7년 을미(乙未 : 719) 2월 15일에 중아찬(重阿漉) 전망성(全忘誠)이 그의 죽은 아버지 인장(仁章) 일길간(一吉干)<sup>50</sup>과 죽은 어머니 관초리(觀肖里) 부인을 위해서 공손하게 감산사(甘山寺)와 석미륵(石彌勒) 하나를 만들고<sup>51</sup>).....(후략)」

위의 기록에서 전망성(全忘誠)이 죽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719년에 감산사를 세우고 금당에 석조미륵상을 모셨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감산사의 건립시기와 현재의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조상시기가 719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조미륵보살입상의 광배 뒷면에는 조상자(造像者) 김지성(金志誠)은 중아찬(重阿漉) 집사시랑직(執事侍郎職)에 있던 귀족으로 67세 때 관직에서 물러나 719년 자신의 감산장전(甘山莊田)을 회사하여 감산사(甘山寺)를 세우고 위로는 왕을 비롯하여 돌아가신 부모, 형제 누이 및 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미타상과 미륵상을 만들어 안치했다는 명문(銘文)이 있다. 본 글에서는 명문 중 미륵상의 조상시기와 관련된 내용만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다.

「개원(開元) 7년 기미(己未) 2월 15일 중아찬(重阿漉) 김지성(金志誠)은 돌아

50) 重阿漉은 신라 17官等の 제 6위이고, 一吉干은 신라 17官等の 제7위로 一吉漉과 같다.

51) 이민수 옮김, 『三國遺事』 「南月山(亦名甘山寺)」條, 을유문화사, 1996, pp.351~352.

寺在京城東南二十許里. 金堂主尊彌勒尊像火光後記云. 開元七年己未二月十五日. 重阿漉全忘誠. 爲亡考仁章一吉于(干). 亡妃(妣)觀肖里夫人. 敬造甘山寺一所, 石彌勒一軀.....(후략)

『三國遺事』 「南月山(亦名甘山寺)」條.

가신 아버지 인장(仁章) 일길찬(一吉滄)과 돌아가신 어머니 관초리(觀肖里)를 위하여 감산사(甘山寺)와 석아미타상(石阿彌陀像) 1구와 석미륵상(石彌勒像) 1구를 삼가 조성하였다<sup>52)</sup>.....(후략)」

위의 내용에서 개원(開元)은 당(唐) 현종(玄宗)의 연호(年號)로 신라 성덕왕(聖德王) 18년인 719년이 되는 때이다. 따라서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조성시기를 719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 중 전망성이라는 이름은 일연이 집필할 당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圖14)은 연화대좌(蓮花臺座) 위에 거신광배(擧身光背)를 갖추고 오른발을 살짝 빼고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비튼 자세로 서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명상에 잠긴 듯한 얼굴 표정에 어깨, 가슴, 팔 등이 양감(量感)이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보관(寶冠)이나 영락(瓔珞)의 세부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천의(天衣)나 상의(常衣) 표현도 뚜렷하다.

머리에는 화려한 연꽃장식을 한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에는 화불(化佛)(圖15)이 있다. 이마와 보관이 만나는 곳에 세줄의 띠모양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것은 삼화령 미륵삼존상의 협시보살상(圖16)의 보관이 띠모양과 비교할 만하다. 얼굴은 살이 오른 듯 하면서 가름하며 두 눈은 반개(半開)해 있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를 띄고 있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목 아래 작은 구슬목걸이와 네모난 구슬장식이 늘어진 이중(二重) 목걸이가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가슴 위로 살짝 올려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고 있다. 천의(天衣)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S자형으로 내린 후 다시 오른쪽 겨드랑이 뒤로 돌아 오른쪽 어깨에서 오른팔로 휘감

52) 번역문은 文明大, 「新羅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甘山寺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上)(下) 『歷史學報』 第62輯·第63輯, 1974. 6·9, pp.86~95, 참조.

開元七年己未二月十五日 重阿滄 金志誠奉 爲亡考仁章 一吉滄 亡妣觀肖里 敬造甘山寺一所 石阿彌陀像一軀 石彌勒像一軀.....(후략)

아 내리고 있다. 오른팔까지 내려진 천의는 다시 올라와 박클형 상의(常衣) 띠 사이로 들어간다. 두 다리는 벌려져 골이 나있는데 박클 사이로 들어온 천의자락이 지그재그로 흘러내리고 있다. 상의는 허리에서 한번 접어 그 위로 박클형의 띠를 두르고 있다. 두 다리에 흘러내리는 의문(衣紋)은 부드럽고 가는 선으로 좌우대칭으로 발목까지 내리고 있다. 왼쪽 어깨에서 무릎으로 내려와 오른쪽 허벅지로 돌아 들어가는 큰 목걸이 장식이 표현되어 있다.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칠불암마애삼존불(七佛庵磨崖三尊佛)의 협시보살상(圖17)과 비슷하지만 좀더 진전되었다. 둥글고 네모난 구슬장식이 늘어선 이중 목걸이나 가슴에서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천의가 다시 양팔에 감기었다가 늘어지는 모습과 상의가 허리에서 접히고 띠를 매는 표현은 8세기 당(唐) 보살상에서도 유행한 양식으로 8세기 전반기 보경사(寶慶寺) 전래(傳來) 11면관음보살입상(十一面觀音菩薩立像)(圖18)에서도 이와 같은 양식이 보인다. 또 일본 나라시대(奈良時代) 8세기 전반기로 여겨지는 약사사(藥師寺) 금당(金堂) 금동약사삼존상(金銅藥師三尊像)의 협시보살상(脇侍菩薩像)(圖19)에서도 이와 같은 양식이 보인다.

따라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양식적 특징은 중국의 당, 통일신라, 일본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국제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sup>53)</sup>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圖14)의 성격과 관련된 조상명문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의 존명이 미륵보살상임을 확인

53) 金理那,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敎彫刻 樣式」 『韓國古代佛敎彫刻史研究』, 一潮閣, 1997, pp.180~189; 鄭于澤, 「吐含山地域 佛敎彫刻 調查研究」 『吐含山地域 佛敎遺蹟 調查研究』,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2000, pp.13~20. 참조, 그러나 文明大 先生은 「新羅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甘山寺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上)(下)(『歷史學報』 第62輯·第63輯, 1974.6·9)에서 彌勒像의 경우 조각양식 면에서 그 규범이 6세기 굽타기의 문수보살상에 있으며 중국의 경우 隋代 관음입상으로 보관의 花文, 목걸이 등이 비슷하며 또한 唐代 영엄사 백대리석 보살상도 천의의 일부 표현에서 공통점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 唐代 寶慶寺 十一面觀音菩薩像과도 같은 양식이라 하였다. 따라서 제작시기는 앞서는 상들의 영향을 받아 8세기 초로 명문에서 보이는 719년 전후한 시기로 보고 있으며, 719년은 완성한 해가 아닐것으로 보아 719년은 절대연대가 아니라 상한년이라고 하였다.

할 수 있다.<sup>54)</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륵보살의 보관에는 탑이 표현되어 있으나 감산사 미륵보살상(圖15)에는 화불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도상적 근거로는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략).....이미 위에는 육계가 있고 머리털은 감유색이며 서가비능가마니보배와 백억만억의 견숙가보배로써 천관(天冠)을 장식할 것이다. 그 관에서 백만억의 빛이 나타날 것이며 날날 빛 가운데에는 한량없는 백천화불이 계서 모든 보살로서 시자를 삼을 것이다<sup>55)</sup>.....(후략)」

위의 내용에서 미륵보살의 ‘보관에 한량없는 백천화불(其天寶冠有 百萬億色. 一一色中有 無量百千化佛)’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미륵보살의 보관에 화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보관에 화불이 있는 또 다른 보살로는 관음보살을 들 수 있다. 관음보살의 조각상으로서의 도상적 특징은 보관에 화불을 가지며 왼손에는 정병(圖20)이나 또 다른 지물(예를 들어 보주 같은 것)(圖21)을 드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감산사의 미륵보살상은 정병을 든 것이 아니므로 미륵보살상임은 더욱 분명해지리라 여겨진다.

54) 金理那先生은 「統一新羅時代の 佛教彫刻」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97, p.188)를 통해서 甘山寺 彌勒菩薩像을 圖像學的으로 볼 때에 寶冠 위에 化佛이 모셔져 있는 것이 특이하며, 원래 관음보살의 冠에 阿彌陀化佛이 보이는 것은 흔하나 미륵보살의 경우에는 寶冠에 塔形을 표현하는 것이 상례라고 하였다. 그리고 像의 銘文이 틀림없이 미륵보살로 관독되었다면 이 化佛은 釋尊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圖像學的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55) 축역 한글대장경 [2],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1155.

(전략).....頂上肉髻 髮紺琉璃色. 釋迦毗楞伽摩尼. 百千萬億甄叔迦寶以嚴 天冠. 其天寶冠有 百萬億色. 一一色中有 無量百千化佛. 諸菩薩以爲 侍者<sup>1)</sup>.....(후략)

## 2. 신라 미륵여래상(彌勒여래像)의 도상 분석

신라시대에 조상되었던 미륵여래상(彌勒如來像)은 미륵보살상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고신라대의 미륵여래상은 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륵하생사상과 전륜성왕사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고신라대에 조상된 미륵여래상의 도상은 동일한 도상이 아니라 의좌형과 입상형 여래상이 조상되어졌으나 두 상 모두 미륵하생사상과 전륜성왕사상과 관련된 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에 들어서면서 전반기에는 유가사상과 미륵상생사상이 유행을 하였지만 8세기 중엽 이후 법상종(法相宗)이 성립되면서 미륵여래상이 조상되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미륵여래상은 1구만이 알려있어서 구체적인 도상을 찾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는 미륵여래상의 도상을 분석하여 신라 미륵여래상의 도상적인 면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삼화령(三花嶺) 미륵삼존상(彌勒三尊像)

현재 국립경주박물관(國立慶州博物館) 조각실에 전시되어 있는 불상들 중에서 애기부처라고 불리는 상이 바로 삼화령(三花嶺) 석조미륵삼존상(石造彌勒三尊像)(圖22)이다. 원래는 이 미륵삼존상은 일제강점기때 장창곡(長倉谷)이라고 불리는 남산 북봉 석실에 있던 상이었는데 1925년에 박물관으로 옮겨왔다.<sup>56)</sup>

삼화령 석조미륵삼존상 중 본존상(圖23)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앉아있는 자세가 의좌상(倚坐像)이라는 것에서 주목을 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4등신(等身)에 가까운 형태이다.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육계는 얼굴에 비해 작고 나지막하다. 얼굴은 크

56)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90. p.309.

고 풍만하며 두 눈은 부은 듯 명상에 잠긴 모습을 하고 있다. 코끝은 깨져 소실되어 있고 입은 작으며 작은 미소를 머금고 있다. 두 귀는 길게 내려와 어깨에 닿아있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보이지 않는다. 머리 뒤에는 두광이 있는데 광배 주위에 굵은 띠를 두르고 그 안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비교적 얇고 발등까지 내려와 있다. 특히 양무릎에는 와선형의 옷주름이 특이하다. 법의 옷자락은 U자형으로 길게 내려와 있고 그 끝에는 매듭이 보인다. 가슴 위에는 끈자가 조각되어 있고 왼쪽 어깨로부터 대각선으로 승각기(僧脚崎)가 보인다.

양손과 두발은 몸에 비해 큰데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하고 손등을 무릎 위에 얹고 엄지 외에 네 손가락을 구부려 법의 자락을 잡고 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세워 무릎 위에 얹고 네 손가락을 구부렸는데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맞대고 있다. 두 손의 전체적인 형태를 볼 때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을 취하고 있는 듯 하다. 두 다리는 벌려져 있고 두 다리 사이로는 U자형 옷주름이 늘어져 있고 조금은 투박스럽게 보이는 두 발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 대좌는 장방형(長方形)에 가까운 타원형(橢圓形)으로 둘레에는 연화문(蓮花紋)이 새겨져 있다.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상(脇侍菩薩像)이 있는데 크기는 본존불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몸에 비해 얼굴이 큰 4등신에 가깝다. 두 보살상은 수인과 목걸이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나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조성되었다.

우협시보살상(右脇侍菩薩像)(圖16)은 머리에 삼면보관(三面寶冠)을 썼고 보관의 좌우 측면과 정면에는 연화문이 새겨져있고 관대(冠帶)는 세 줄로 표현되어 있다. 보관 밑으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귀를 덮고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얼굴은 동안(童顏)으로 반개(半開)한 눈은 약간 부은 듯하고 코끝은 조금 손상되어 있다. 입에는 약간의 미소를 머금고 있다. 머리 뒤에는 두광이 있지만 아무런 장식문양이 없다. 목에는 삼도가 없고 세 줄의 굵은 목

걸이를 U자형으로 걸치고 있다.

천의(天衣)는 어깨에서부터 U자형으로 가슴 앞으로 지나는 것과 길게 늘어져 무릎 앞으로 지나는 2단으로 표현되어 있다. 2단 천의 사이로 O자형 옷주름이 보인다. 무릎을 지나는 천의는 다시 밑으로 흘러 발등까지 내려져 있다.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 흘러내리는 천의는 발끝까지 내려와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올려 연꽃잎을 잡고 왼손은 복부(腹部)에서 수평으로 들어 왼손에서 내려오는 연꽃 줄기를 잡고 있다. 두 발은 앞을 향하고 있고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구부린 듯 하다.

좌협시보살상(左脇侍菩薩像)(圖24)의 표현과 형식은 우협시보살상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우협시보살상에 비해 삼면보관의 관대는 4줄이고 목걸이는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걸치고 있다. 그리고 오른손은 가슴 밑으로 올려 손바닥을 밑으로 하여 연봉을 들고 왼손은 복부 부분에서 연잎을 잡고 있다. 두발은 정면을 향하고 있고 왼쪽 무릎을 약간 굽인 듯 하다.

본 삼존상의 형식과 양식적인 면에서 고신라(古新羅) 불교조각(佛敎彫刻) 피체적(塊體的) 처리, 비정제성(非整制性), 서로 다른 표현양식의 공존 등에서 고신라 조각의 일반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sup>57)</sup> 삼존상의 조성시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 「生義寺石彌勒」條를 근거로 하여 신라 선덕여왕(善德女王)대인 644년으로 추정하고 있다.<sup>58)</sup>

삼화령 석조미륵삼존불의 양식적인 측면을 볼 때 배리삼체석불입상(拜里三體石佛立像)(圖25)과 유사하지만 한층 부드러운 양상(樣相)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작 시기적인 차이보다는 불상 제작의 주재료인 화강암의 석질 차이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두 작품의 제작시기<sup>59)</sup>는 7세기

57) 姜友邦, 「慶州 南山論」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p.398.

58) 이와 관련된 참고 문헌은 『三國遺事』 卷3 「生義寺石彌勒條」; 同書, 「忠談師條」 이 있고, 논문으로는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을유문화사, 1996); 同著,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90, pp.309~339); 黃富敬, 「慶州 南山三花嶺 石造三尊佛像의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1995. 12); 文明大, 『吐舍山石窟』 (한·연, 2000, pp.178~181); 최성은, 「新羅 佛敎彫刻의 對中關係」 『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0, p.37) 등이 있다.

59) 두상의 造成時期의 先後 關係에 對해서는 文明大 先生은 「禪房寺(拜里) 三尊石佛立像의 考察」 『美術資料』 제23호(1978)에서 拜里三尊石佛立像이 7세기 1/4분기로

전반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여겨진다.

삼화령 석조미륵삼존불은 배리삼체불에서 보이는 동안(童顏)과 4등신에 가까운 신체 비례, 그리고 얼굴에서 보이는 조금은 부어있는 듯한 눈과 어린아이 같은 입가의 미소가 많이 닮아있다. 두 상이 손발이 크고 발모양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정면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634년에 조성된 분황사석탑의 인왕상(圖26)의 경우에도 신체에 비해 얼굴과 손발이 크게 표현된 4등신에 가깝고 조각상에서는 힘이 있는 강건한 표현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천의 표현에서도 하복부(下腹部)와 무릎에 2단으로 의문이 표현되어 있고 무릎 아래로 흘러내리는 천의 표현에서 삼화령삼존의 우협시보살상의 의문과 유사하다.

중국의 경우 삼화령 석조미륵삼존상과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는 감숙성(甘肅省)박물관의 북주(北周) 건덕(乾德) 2년(573) 석조미륵삼존상(圖27)을 들 수 있다. 앉아있는 자세가 의좌형(倚坐形)이라는 것과 비례감, 세부표현에서 삼화령 석조미륵삼존상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또 협시보살들의 모습과 천의가 2단인 것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삼화령 본존불 무릎의 와선형 옷주름은 대판(大阪)시립박물관의 북제(北齊) 천보(天保) 8년(557) 석조미륵삼존불(圖28)에서도 보이는데 삼화령 본존불의 와선형 의문(衣紋)이 양각으로 새겨진 반면 천보 8년의 본존불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삼화령삼존불의 협시보살들의 경우 천의가 2단으로 늘어져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앞서 언급한 분황사석탑(634) 서쪽 인왕상(圖26)의 2단 천의표현과 7세기 후반기의 작품으로 보여지는 선도산마애삼존불(圖29)에서도 본존불과 협시보살상의 의문이 2단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보살상의 2단의문이 7세기에 유행한 한 양식으로 보여진다.

애기부처라고 불리는 상(圖22)이 삼화령 미륵삼존상으로 명명된 것은

---

644년의 三花嶺石造彌勒三尊像의 제작시기보다 앞선다고 하였고, 姜友邦 先生은 「仙桃山 阿彌陀三尊大佛論」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을 통해서 斷石山磨崖三尊佛 - 三花嶺三尊佛 - 拜里三體佛 - 仙桃山磨崖三尊佛 순으로 삼화령삼존불상이 배리삼체불보다 제작시기가 앞선다고 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생의사석미륵(生義寺石彌勒)」 조(條)와 「경덕왕(景德王) 충담사(忠談師)」 조(條) 두 기록을 근거로 한 것으로 「생의사석미륵」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덕왕(善德王) 때에 중 생의(生義)는 항상 도중사(道中寺)에 살고 있었다. 어느날 꿈에 한 중이 그를 데리고 남산(南山)으로 올라가서 풀을 매어 표를 해 놓게 하고는 산 남쪽 골짜기에 와서 말했다.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이것을 파내다가 고개 위에 편하게 묻어 주시오.” 꿈에서 깨자 그는 친구와 함께 표해 놓은 곳을 찾아 그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자 거기에서 석미륵(石彌勒)이 나왔으므로 삼화령(三花嶺)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왕 13년 갑진(甲辰 : 644)에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뒤에 절 이름을 생의사(生義寺)라고 했다(지금은 잘못 전해져서 성의사(性義寺)라고 한다. 충담사(忠談師)가 해마다 3월 3일고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공양한 것이 바로 이 부처다).<sup>60)</sup>」

위의 내용에서 선덕여왕(善德女王) 때의 승려 생의(生義)가 석미륵(石彌勒)을 삼화령에 안치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석미륵상이 마애불상(磨崖佛像)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원각상(圓刻像)임을 알 수 있다.<sup>61)</sup> 그리고 선덕여왕 13년(644)에 생의사(生義寺)라는 절을 지어 모셨다는 내용이 전하고 있어 그 미륵상이 현재의 삼화령미륵삼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충담사와 삼화령미륵상과 관련한 『삼국유사』의 내용이다.

「(전략).....3월 3일 왕이 귀정문(歸正門) 누각 위에 나가서 좌우 신하들에게 일렀다. “누가 길거리에서 위의(威義)있는 중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때 마침 위의 있고 깨끗한 고승(高僧) 한 사람이 길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60) 이민수 옮김,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96, pp.285~286.

善德王時, 釋生義常主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既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三國遺事』 「生義寺石彌勒」條.

61)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90, p.335.

있었다. 좌우 신하들이 이 중을 왕에게로 데리고 오니, 왕이 “내가 말하는 위의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다시 중 한 사람이 있는데 납의(衲衣)를 입고 앵통(櫻筒 : 혹은 삼태기를 등에 졌다고 했다)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왕이 보고 기뻐하여 누각 위로 영접했다. 통 속을 보니 다구(茶具)가 들어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소승(小僧)은 충담(忠談)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소승은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차를 달여서 남산(南山) 삼화령(三花嶺)의 미륵세존(彌勒世尊)께 드리는데, 지금도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sup>62)</sup>.....(후략)

위의 내용은 삼화령미륵세존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신라 왕궁 서쪽 ‘귀정문남루상(歸正門南樓上)’에서 바라볼 때 남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충담사가 남쪽으로부터 신라 도성(都城)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sup>63)</sup> 그리고 충담사와 경덕왕의 대화 내용에서 삼화령미륵세존이 있는 곳이 남천을 사이에 두고 반월성(半月城)의 귀정남루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리로 해석되기 때문에 삼화령으로 비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64)</sup> 따라서 삼화령미륵삼존상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화령미륵삼존상과 같은 의좌형여래상(倚坐形如來像)의 조성 유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좌형 미륵상은 조각상으로는 크게 조상(造像)되지 않는 듯한 듯 하다. 현재 석조상(石造像)으로서 의좌형여래상은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화령 미륵삼존상(圖22)과 고려시대에 조성된 법주사(法主寺) 마애미륵의좌상(磨崖彌勒倚坐像)(圖30)

62) 이민식 옮김, 앞의 책, pp.157~158.

(전략).....三月三日, 王於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一作荷簍).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후략)  
『三國遺事』 「景德王 忠談師」條.

63) 黃壽永, 앞의 논문, p.335.

64) 姜友邦, 「慶州 南山論」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p.398.

을 들 수 있다. 두 상의 제작시기가 많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점으로는 재료와 같은 의좌형 여래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각상의 시작은 인도의 간다라·마투라 지역에서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경우가 많은데 의좌형 여래상 또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전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의좌형의 기원은 인도 쿠산왕조 왕의 의좌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쿠산왕조와 굽타왕조 시기에는 아잔타 석굴에 자주 등장한다.<sup>65)</sup> 특히 인도 쿠산왕조의 시조(始祖) 웨마 카드피세스 왕의 상(圖31)은 사자좌(獅子座)에 앉아있는 의좌상으로 중국에서 보이는 사자좌에 앉아있는 중국의 미륵교각상(彌勒交脚像)이나 미륵의좌상의 시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상이 여래상이 아니라 왕의 상을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초기 인도 불상들은 건장한 왕이나 장군들을 모델로 한 전륜성왕(轉輪聖王)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엘로라 석굴군 중 7세기에 조성된 엘로라 탐원 제10굴 내부 석주에는 의좌형삼존상(倚坐形三尊像)(圖32)이 조성되어있다. 단지 조성된 시기가 조금은 늦지만 이미 이전 시기부터 의좌형 삼존상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상의 본존불상은 머리가 나발(螺髮)이고 육계가 크다. 법의는 나신(裸身)에 가까운 얇은 옷으로 표현하고 두 손은 가슴아래에 올려 전법륜인(轉法輪印)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사각 사자좌에 의좌형으로 앉아 있다. 양 협시불의 천의도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얇은 옷을 표현하면서 3곡(三曲)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좌형 여래상의 기원이 인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운강석굴(雲岡石窟) 제6굴 중심 탑주(塔柱) 남면(南面) 하층(下層) 감실(龕室)에 조성되어 있는 의좌여래상(圖33)의 경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미륵여래상이 있다. 육계가 크고 머리는 곱슬머리로 표현되어 있으며 양손은 무릎에 내리고 있다. 왼손은

---

65) Susan L. Huntington, 『The Art of Ancient India』, 1985, p.248의 fig.11, 12(p.638).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무엇인가를 쥐고 있는 듯이 손은 살짝 움켜잡고 있다.

일본 대원미술관(大原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는 북제(北齊) 천보(天保) 3년(552) 수하미륵오존상(樹下彌勒五尊像)(圖4)의 정면의 좌우대칭의 반원형의 용화수로 보이는 나무아래에 미륵여래상이 의좌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화령미륵삼존상의 본존상은 큰 연화문 대좌 위에 앉아 있으나 천보3년 상은 족좌에 양발을 올려놓은 것이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한 감숙성(甘肅省)박물관의 북주(北周) 건덕(乾德) 2년(573) 석조미륵삼존상(圖27)을 들 수 있다. 본존불의 의좌형(倚坐形)의 자세와 본존상과 협시보살상들의 조형성이 삼화령미륵삼존상과 거의 유사함을 엿 볼 수 있다.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제 390굴 북벽의 수하설법삼존상(樹下說法三尊像)(圖34)에는 의좌형의 본존과 좌우협시보살이 그려져 있다. 용화수(龍華樹) 아래에 화불이 있는 보관을 쓴 본존상이 오른손을 펴서 어깨까지 올리고 왼손은 왼쪽 무릎 아래로 내리고 눈은 지긋이 내려리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인도에서 시작한 의좌형 여래좌상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는 의좌상의 여래상이 미륵여래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신라의 경우는 중국의 의좌형 미륵여래상을 그 모본으로 삼아 조상된 도상이라 볼 수 있다.

## 2) 단석산(斷石山) 마에미륵상(磨崖彌勒像)

경주시 건천읍 단석산(斷石山) 신선사(神仙寺)에는 ㄷ자형의 거대한 4개의 암벽이 석실을 이루고 있는데 서쪽만이 튀어져 있다. 석실 암벽의 동면에는 정병(淨瓶)을 든 보살상, 남면에는 명문(銘文)과 보살상이 조각되어 있다. 북면은 거대한 두 개의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쪽 북면

에는 약 8미터 높이 마에미륵불(磨崖彌勒佛)이 조각되어 있고, 서쪽 북면에는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과 삼존불상(三尊佛像), 그 아래에는 미륵대불을 향하는 2구의 공양자상(供養者像)과 승상(僧像)이 조각되어 있다.

본 단원에서는 단석산 마애조상군 전체를 다루지 않고 마에미륵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북면의 마에미륵대불은 남면의 명문이 없었다면 존명(尊名)을 추정하기에 어려운데 명문에는 15행과 16행에서 사찰의 이름과 마애불의 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산암(山巖) 아래에 가람을 창건하면서 영허(靈虛)로 인하여 신선사(神仙寺)라고 지었다.<sup>66)</sup>」

「미륵석상(彌勒石像) 1구는 높이 3장이요, 보살 2구는 명시(明示)하여.....<sup>67)</sup>」

이들 명문들에 의하면 마애조상군(磨崖造像群)이 있는 사찰의 이름이 신선사(神仙寺)이고 마애대불(磨崖大佛)이 미륵석상임을 알 수 있고 그 크기와 보살상 2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68)</sup>

북쪽면의 두 개의 암벽 중 동쪽 암벽에는 마에미륵여래입상(磨崖彌勒如來立像 : 상의 높이는 6.5미터, 두광을 포함한 총 높이는 7미터)(圖35)이 조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표현에서는 정면을 향하고 신체에 비해 머리와 손발이 큰 4등신에 가까워 배리삼체불이나 삼화령미륵삼존불의 형태와 유사하다.

얼굴은 둥글고 크며 머리는 소발이고 머리 위의 육계는 머리에 비해 좁

66) 번역문은 金昌鎬, 「慶州斷石山神仙寺 磨崖造像記의 年代 問題」 『慶州文化』 제6호, 慶州文化院, 2000. p.166. 참조.

.....山巖下 創造伽藍 因靈虛 名神仙寺作 (15행)

67) 金昌鎬, 앞의 논문, p.166.

彌勒石像一區高三丈菩薩二區明示..... (16행)

68) 黃壽永, 「斷石山神仙寺石窟磨崖像」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90, pp.274~284); 姜友邦, 「햇골산 磨崖佛群과 斷石山 磨崖佛群」 『李基白先生古稀記念 韓國私學論叢』 (一朝閣, 1994); 同著,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pp.47~64)에서는 미륵석상과 2구의 보살상을 미륵삼존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 작은데 띠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상투를 한 것 같다. 이러한 이중의 형태를 가진 육계는 배리삼체불의 본존불(圖36)의 육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눈은 반개(半開)해 있고 코는 손상되어 있는데 입가에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까지 내려와 있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보이지 않는다. 두광은 일부만이 표현되어 있다. 두손의 모양은 시무외연원인(施無畏與願印)을 취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어깨 밑까지, 왼손은 가슴 밑까지 올려 조금은 어색하고 힘겨워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은 배리삼체불의 본존불의 손모양과 닮아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으로 U자형으로 길게 늘어져 있고 왼쪽 어깨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승각기(僧脚崎)와 띠매듭이 보인다. 법의의 의문은 U자형으로 길게 반복적으로 흘러내려 발끝까지 내리고 있으며 두 다리 사이에는 길게 골을 내어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

발은 발가락만 표현되어 있는데 투박하고 크며 정면을 향하고 있지만 대좌의 표현은 없다. 발 모양이 정면을 향하는 것도 배리삼체불이나 삼화령미륵삼존상(圖22)의 것과도 유사함을 엿 볼 수 있다.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은 규모가 크고 각 세부의 생략이 심하고 평면적인 느낌을 주지만 고부조의 조각 수법으로 인해 육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둥근 얼굴, 커다란 두 손, 큰 발가락의 표현에서 고신라(古新羅) 특유의 양식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마애여래입상과 관련된 보살상이 두 구 있는데, 한 구는 동쪽 암벽의 보살상과 남쪽 암벽에의 보살상 두 구인데 명문을 근거로 두 보살상이 협시보살상으로 삼존을 이루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sup>69)</sup>

동쪽 암벽의 보살입상(菩薩立像 : 총 높이 5.75미터, 상의 높이 5.4미터)(圖37)은 평면 부조 조각상으로 머리는 보관이 없고 민머리로 표현되어 있다. 눈은 반개해 있으며 코는 얼굴에 비해 가늘고 길고 입에는 미소가 보이지 않는다. 상체는 나신(裸身)에 가깝고 천의(天衣) 표현에서 규칙성 없이 흐르고 있으나 상의(常衣) 자락은 발목까지 내려왔고 천의 자락

69) 黃壽永, 앞의 논문 ; 姜友邦, 앞의 논문.

은 발 아래까지 내려왔다. 왼손은 펴서 손등을 밖으로 하여 가슴에 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복부 근처에 올려 정병(淨瓶)을 들고 있다. 발은 양쪽으로 벌려져 있고 발 아래에는 연화대좌가 표현되어 있다.

남쪽 암벽의 보살입상(총 높이 4.35미터, 상의 높이 3.8미터)(圖38)는 앞은 평면 부조 조각상으로 머리에는 보관인 듯한 것이 올려져 있지만 광배 표현은 없다. 전체 윤곽선만 있고 세부 표현은 두 손과 두 발만이 표현되어 있어 미완성의 작품인 것 같지만 아마도 탈락이 심해서 인 듯하다.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리고 왼손은 복부 부분에 올려져 있는데 손목에 걸쳐져 있는 천의자락이 조금 보인다. 그 외에 다른 옷주름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발 아래에는 동쪽 보살입상과 마찬가지로 연화대좌가 표현되어 있다.

다시 마애미륵불입상은 명문을 근거로 하여 미륵본존불로 동면과 남면의 보살상들을 양쪽 협시보살상으로 보아 삼존불로 추정하고 있지만 두 보살상의 조각적인 수법과 크기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협시보살상으로 보기에선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마애미륵불입상과 동면과 남면의 보살상들은 별도로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명문과 조각상과 관련하여 연대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sup>70)</sup> 이것은 마애조상군의 조성시기와 명문의 제작 시기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주 지역에 명문이 있는 불상들 중에서 용장사(葺長寺)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圖39)과 윤을곡마애불(潤乙谷磨崖佛 : 835)(도40) 경우 명문이 주 대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작되어 있는 반면 단석산 마애조상군 명문의 경우 주 대상이 마애미륵여래입상인데 불구하고 그 명문은 남쪽 보살입상 오른쪽 구석에 있다는 것은 제작 시기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단석산 마애미륵여래입상의 제작시기는 그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7세기 전반기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석산 마애미륵입상(圖35)은 현재 미륵불로 명명되어 지고 있는 상으

70) 黃壽永 先生은 앞의 논문에서 진흥왕순수비와 비교해 볼 때 6세기로 추정하였으나 金昌鎬 先生은 앞의 논문에서 명문의 제작시기의 상한선이 661년으로 불상군의 제작시기도 명문의 제작시기와 맞추어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로 그에 대한 근거는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명문에 ‘미륵석상(彌勒石像) 1구의 높이는 3장(丈)이고 보살상 2구가 명시되어’<sup>71)</sup>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미륵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도상적인 면으로 볼 때는 미륵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지만,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의 미륵하생신앙과 고신라의 미륵신앙을 근거로 살펴볼 때는 미륵여래상일 가능성이 있다.

II장에서 제시한 『미륵하생경』 내용 중에 양거(驤去)라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나타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미륵의 출현은 전륜성왕이 출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轉輪聖王이 지상을 통치할 때, 동시에 미륵이 하생하게 된다는 미륵신앙의 골자이다. 미래의 구세주인 미륵이 단순히 미래의 불타라는데 머물지 않고 전륜성왕이라는 이상적인 왕권과 결부시켜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특징으로서 신앙받게 된다는 것이다.<sup>72)</sup>

따라서 고신라의 시대적 배경은 삼국과 경쟁하던 시기로 이상적인 국토 건설을 위해 자연스럽게 전륜성왕 사상과 결부된 미륵신앙이 숭배되었고, 예배대상으로서 미륵도 전륜성왕이 그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중국 운강석굴(雲岡石窟)의 담요오굴(曇曜五窟)<sup>73)</sup>의 경우 5구의 대불은

71) 彌勒石像一區高三丈菩薩二區明示

72) 宮治 昭, 「巨大佛像の原流-彌勒と毘盧舍那」 『世界の博物館』 19, 講談社, 1984, p.178.

73) 『魏書釋老志』에 따르면 沙門統(종교 장관)인 曇曜가 文成帝에게 석굴의 조영을 신고하였다. 즉, ‘京城(平城)의 서쪽 武州塞에 있는 산의 암벽을 뚫어 석굴 5개소를 열어 각각 불상을 하나씩 새겼는데 높은 것은 70척(尺), 다음은 60척(尺)이다. 정말로 造飾이 奇偉한 것이 일세에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불 조성이 시작된 것은 和平年間(460~465) 초기의 일이다. 이 석굴 5개소에 조각된 대불이 曇曜五窟이라 불리워지는 제16~20굴의 조상에 해당해 모두 量感이 넘치는 멋진 작품이다. 담요오굴 중 가장 큰 대불은 제19굴로 높이 16.5미터이고 가장 작은 제20굴이라도 13.5미터이다. 5體의 대불을 나란히 만들어진 것은 북위의 역대 5인의 황제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듯 하다. 원래 유목민인 鮮卑族인 북위는 「當今如來思想」-황제는 이세계에 나타난 여래라고 하는 사상-을 성립시킨 것으로 대불조성은 이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북위의 「당금여래사상」을 이야기하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太武帝의 불교탄압후 문성제는 관원에게 ‘帝身’과 같은 석불상의 제작을 명하여 완성하여 보자 얼굴과 다리에 검은 풀이 나타나 마침 황제의 두 개의 점과 일치했기 때문에 부처의 靈威로 모두

각각 조상 형태와 얼굴을 다르게 표현해 불타와 황제의 이미지를 서로 겹쳐서 만들어졌다. 5구의 대불은 각각 다른 존격(尊格)을 갖는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제16굴의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 : 높이 14미터)(圖41)은 오른손을 올려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왼손을 아래로 내리고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있다. 다른 대불과 달리 중국식의 복장을 하고 있어 얼굴도 길게 표현되어 다르다. 이 대불의 인상(印相)<sup>74)</sup>으로는 아미타(阿彌陀)가 되지만, 당시 불교의 성립에서 갑자기 따르기는 어렵다.

제17굴의 대불은 보관(寶冠)을 씌우고 가슴에 영락(瓔珞) 장식이 있는 당당한 교각(交脚) 보살상(높이 16.3미터)이다. 북위에서는 교각보살(交脚菩薩)은 도솔천 위의 미륵보살을 나타내고 있어 16굴의 석조여래입상 또한 미륵상으로 여겨진다.<sup>75)</sup>

중국의 상들과 비교하여 볼 때 단석산 마애여래상이 미륵하생사상과 전륜성왕사상이 결합된 도상으로 나타난 미륵여래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용장사(葺長寺) 석조여래좌상

용장사(葺長寺)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은 경주 남산 용장골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상(像)은 1923년 봄에 일단 대좌에서 굴러 떨어졌던 것을 복구(復舊)했다고 하며, 9년 후인 1932년 다시 무너졌던 것을 그 해 11월에 복구하였다.<sup>76)</sup>

용장사 석조여래좌상(圖42)은 자연석 기단 위에 둥근 판석을 삼층으로 올려 대좌를 형성하고 마지막 판석 위에 연화대좌를 놓았는데 그 대좌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여래상이 앉아있다.

기뻐했다고 한다.

74) 梵語로 mudra의 역으로 원래는 봉인(封印) 또는 표식(標識)을 의미. 단순히 인(印)으로도 혹은 인계(印契)라고도 한다. 불상 등의 손가락을 나타내고 있는 특수한 모형을 가리킨다.

75) 宮治 昭, 「巨大佛像の原流-彌勒と毘盧舍那」 『世界の博物館』 19, 講談社, 1984, p.176.

76)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 p.53 ; 文明大, 「太賢과 葺長寺의 佛教彫刻」 『白山學報』 第17號, 白山學會, 1974, p.125.

여래상의 머리는 없고 삼도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결가부좌한 자세에 수인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으로 보이는데 왼손과 오른손 위치가 바뀌어 있다.<sup>77)</sup>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왼쪽 어깨에 띠매듭이 보인다. 다시 띠매듭에서 흘러내리는 두 줄의 끈은 길게 늘어져 무릎 아래까지 내려지고 그 끝에는 수술이 달려있다. 가슴에는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승각기(僧脚崎)가 보이고 이것을 묶는 매듭이 보인다. 대의 옷자락은 길게 내려와 대좌를 덮어 상현좌(裳懸坐)를 이루고 있다.

이 상(圖43)에서 보이는 몇 가지 양식적 특징 가운데 승각기를 묶는 띠매듭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전시되어 있는 백률사(栢栗寺) 금동약사여래입상(金銅藥師如來立像)(圖44)과 삼릉계(三陵溪) 목없는 석불좌상(石佛坐像)(圖45)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보이는 띠매듭과 길게 내려오는 두 줄의 띠는 삼릉계 목없는 석불좌상(圖46)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보인다. 전체적인 상으로 볼 때는 두꺼운 법의 탓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신체의 굴곡 표현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어깨와 가슴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에서 8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보리사(菩提寺) 석불좌상(石佛坐像)(圖47)과 유사하다. 따라서 용장사 삼층연화좌 석조여래좌상의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조성시기<sup>78)</sup>는 8세기 후반으로 보아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용장사 삼층연화대 석조여래좌상(圖42)의 도상적인 면에서 볼 때 미륵이라는 근거를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먼저 그 성격과 관련하여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유가종(瑜伽宗)의 조사(祖師) 고승(高僧) 대현(大賢)<sup>79)</sup>은 남산(南山) 용장사

77) 文明大 先生은 향마촉지인의 오른손과 왼손을 바뀌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상의 성격이 보살상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였다(앞의 논문, p.126).

78) 文明大 先生은 양식적으로 형태나 선 등에서 석굴암 불상군의 감실상과 유사하고 대좌와 상현좌 옷주름 표현 등에서 감산사 미륵보살과 아미타여래상과 공통점이 발견됨으로 조성시기는 8세기 2/4분기로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p.134) ; 秦弘燮 先生은 조성시기를 9세기로 추정하였다.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92, p.248.

(茸長寺)에 살았다. 그 절에는 돌로 만든 미륵장육상(彌勒丈六像)이 있었다. 태현이 항상 이 장육상을 돌면 장육상도 역시 태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sup>80)</sup>.....(후략)」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용장사에 있었던 미륵상은 현재의 삼층연화대 석조여래좌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태현(太賢)이 용장사에 머물렀던 시기는 경덕왕 때<sup>81)</sup>로 보고 있는데 불상의 양식과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록과 같이 태현에 의해서 조상된 것은 아니라 그 이후에 미륵상으로 조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불설미륵대성불경』에는 미륵이 하생하여 삼회설법 이후 여덟가지神通력을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륵부처님이 4제 법을 설하시어 하늘과 사람들을 제도하시고 여러 성문제자와 하늘·용·8부신중과 온 대중들을 이끌고 성안에 들어가서 밥을 비시었는데, 수많은 정거천의 대중들이 부처님을 공경하여 뒤따를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열 여덟가지神通을 나투어 몸 아래에서는 마니 구슬처럼 보이는 물이 나와서 광명이 크게 변하여 지방세계를 비치며, 몸 위로는 불이 나와 수미산처럼 높이 솟고 불에서 자금색의 광명이 흘러나와 허공 가운데 가득할 것이데, 이것이 다시 유리로 변하며, 이와 같이 큰 몸이 다시 작게 변하여 겨자씨만 하다가 아주 보이지 않게 되느니라. 또 부처님의 몸은 지방 세계에 나타났다 없어졌다.....<sup>82)</sup>」

79) 太賢과 동일 인물임.

80) 이민수 옮김,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96, p.431.

瑜伽祖大德大賢, 住南山茸長寺. 寺有慈氏石丈六. 賢常旋繞. 像亦隨賢輪面.....(후략)  
『三國遺事』 「賢瑜伽」條.

81) 太賢은 통일로 안정된 신라의 황금기인 성덕왕 경덕왕대인 성기신라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文明大선생은 「太賢과 茸長寺의 佛教彫刻」 『白山學報』 第17호, 1974, p.120.

82) 축역한국대장경<sup>2)</sup>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p.1179.

時彌勒佛設 四聖諦深妙法輪. 度 天人已. 將 諸聲聞弟子天龍八部一切大衆. 入城乞食. 無量淨居天衆恭敬從 佛入 翹頭末城. 當 入城時. 佛現 八十種神足. 身下出水. 如 摩尼珠. 化成 光臺照 十方界. 身上出火. 如 須彌山 流 紫金光. 現大滿 空化成 琉璃. 大復現 小如 芥子許. 泯然不現. 於 十方踊於 十方沒.....

「佛說彌勒大成佛經」 p.432, 『新修大藏經』 券4.

위의 내용 중에서 미륵여래가 행하는 여덟가지 신통력 중에서 ‘몸 아래에서는 마니 구슬처럼 보이는 물이 나와서 광명이 크게 변하여十方세계를 비치며(身下出水. 如 摩尼珠. 化成 光臺照 十方界)’라는 장면은 미륵이 앉아있는 대좌 밑에서 마니보주(摩尼寶珠) 같은 물이 나와 대좌를 받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용장사 삼층연화대 석조미륵여래좌상의 삼층연화대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삼층연화대의 각각의 형상이 마니보주와 다르지만 마니보주를 도식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상의 성격에 대하여 여러 선행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보살상	여래상	미륵여래상	미륵보살상	출 처
고유섭	○				『韓國塔婆의 研究』, 考古美術同人會, 1968.
진홍섭		○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92.
문명대	○			○	「太賢과 茸長寺의 佛教彫刻」 『白山學報』, 제17호, 1974.
김리나		○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7.
강우방		○			「南山論」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표 1> 용장사 석조여래좌상의 존명

위의 표와 관련하여 볼 때 용장사 삼층연화대 석불좌상의 존명(尊名)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본 글에서 미륵여래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그 도상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어깨에서 보이는 매듭과 아래로 내려오는 두 줄의 표현은 남산 삼릉계 목없는 석불좌상(圖45)의 것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목에 삼도(三道) 표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신라에서 조성된 보살상의 경우에는 삼도가 대부분이 표현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인의 표현에서 불국사(佛國寺)의 금동비로자나여래좌상(金銅毘盧

舎那如來坐像)(圖48)의 경우 오른손과 왼손이 바뀌어 표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권인(智拳印)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용장사의 삼층연화대 석불 좌상의 경우도 단지 좌우가 바뀌어 표현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상은 보살상이 아닌 여래상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미륵여래상의 경우 의좌형의 여래상으로만 조상되지는 않는다. 중국의 공현석굴(鞏縣石窟)의 경우 제4굴의 심주(心柱)에 조상된 미륵상(圖49)의 자세는 가부좌로 앉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황(開皇) 9년(589)명 안양(安陽) 영천사(靈泉寺) 대주성굴(大住聖窟)(圖50) 내부의 세 벽 감실에 노사나(盧舍那), 미륵(彌勒), 아미타(阿彌陀) 삼존상이 조상되어 있다.<sup>83)</sup> 이 불상들 중에서 동벽 감실에 조상되어 있는 미륵삼존상(彌勒三尊像)(圖51)의 경우 4단 방형 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미륵여래상과 좌측에는 제자상 1구와 우측에는 보살상 1구가 조상되어 있다. 미륵여래상의 얼굴은 없어졌으나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려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취하고 왼손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는 듯 하다. 상현좌의 형식과 왼손의 수인은 용장사 삼층연화대 석조여래조상의 수인과 비슷함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8세기 중엽 이후의 여래상은 석굴암 본존불(圖52)을 모본으로 삼아 조상되었으며 8세기 후반기 작품인 용장사의 미륵여래상의 경우도 결가부좌의 향마촉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륵여래상은 다른 상들과 달리 구체적인 도상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와 같이 그 시대에 따라 다른 도상으로 조상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83) 陳明達, 「北朝晚期的重要石窟藝術」 『中國美術全集』, 1989, 文物出版社, p.23.

## V. 신라 미륵상의 조각사적(彫刻史的) 의의

현재까지 알려진 신라 미륵상으로는 고신라 시기에 조상되었던 반가사유상과 2구의 미륵여래상과 통일신라 시기에 조상되었던 감산사 미륵보살입상 그리고 용장사 삼층연화대 석조미륵여래상 등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미륵상의 양식적인 분석하고 각 도상적 면을 분석하여 특징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앞선 장의 내용을 기초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미륵상들의 형식과 조상시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자 세	제작시기
반가사유상	반가상	6~7세기
삼화령 미륵삼존상	의좌상	644년 추정
단석산 마애미륵상	입상	7세기 전반기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상	입상	719년
용장사 석조여래좌상	결가부좌상	8세기 후반기

<표 2> 신라 미륵상의 형식과 조상 시기

위의 <표 2>를 참고하면 신라 미륵상들의 형식과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신라 미륵상 형식적 특징으로는 삼국시대 고신라에서 조상되었던 반가사유상은 6~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상되었고 7세기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미륵여래상이 조상되었는데, 2구의 미륵여래상들은 의좌상인 좌상 형식과 입상 형식이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 미륵상들은 총 2구인데 미륵보살상의 경우는 입상의 형식을 하고 있고 미륵여래상의 경우는 결가부좌상인 좌상의 형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미륵보살상은 반가좌와 입상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미륵여래상은 대부분 좌상의 형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석산 마애미륵상의 경우는 다른 여래상과는 달리 입상의 형식으로 예외적인 도

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라 미륵상의 조상배경이 되는 관련 사상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경 전	사 상
반가사유상	불설관미륵보살도솔천상생경	도솔천왕생사상
삼화령 미륵삼존상	불설미륵하생경	전륜성왕사상
단석산 마애미륵상	불설미륵하생경	전륜성왕사상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상	불설관미륵보살도솔천상생경	유가사상
용장사 석조여래좌상	불설미륵하생경, 불설미륵대성불경	용화정토사상

<표 3> 신라 미륵상의 조상배경

위의 표에 의하면 미륵여래상은 『미륵하생경』과 『미륵성불경』을 근거로 조상되었고 미륵보살상은 『미륵상생경』을 근거로 조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신라 시기에 조상되었던 반가사유상 경우는 반가좌형식으로 조상되었다. 반가사유상은 태자상의 도상에서 출발하였지만 중국 북제 이후 태자상 뿐만 아니라 도솔천의 미륵보살상으로도 조상되었다. 그 후 반가사유상의 도상이 신라에 전해지면서 도솔천의 미륵보살상으로도 조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신라에서는 6~7세기에 집중적으로 조상되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도솔천왕생신앙이 주로 신앙되면서 반가상의 미륵보살상이 조상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7세기에 들어서면서 미륵여래상이 조상되는데, 이는 삼국시대 말기인 7세기에는 통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전륜성왕사상과 결합한 미륵하생사상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여래상 2구는 좌상과 입상의 형식만 다를 뿐 그 조상 배경이되는

소의경전과 전륜성왕사상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신라의 미륵상은 신격화된 전륜성왕을 미륵과 동격화함으로서 미륵여래상이 곧 전륜성왕상임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기에 조상된 미륵상은 총 2구로 미륵보살상은 입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사상적 배경은 『미륵상생경』과 유가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상종의 성립시기는 8세기 중엽으로 유가사상을 법상종으로 보기에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8세기 전반기에 조상된 미륵보살상은 계율을 강조하는 미륵상생사상과 유가사상이 사상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미륵여래상은 결가부좌 형식으로 절대왕권이 무너진 시기에 법상종을 배경으로 조상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미륵이 하생하여 성도하는 과정으로 미륵성도상(彌勒成道像)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륵이 성도함으로서 미륵이 하생한 지상은 곧 용화세계가 된다는 『미륵하생경』과 『미륵대성불경』을 근거로 조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신라대 전반기에는 미륵상생사상인 도솔천왕생사상을 중심으로 미륵신앙이 신봉되었는데 이는 고구려와 같이 아미타 극락세계와 도솔천 극락세계가 분리되지 않은 까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7세기에 들어서면서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앙이 혼용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특히 고신라 말기에는 삼국간에 힘을 겨루면서 영토확장 정책과 통일전쟁이 본격화 되어졌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등장한 사상이 전륜성왕사상과 결합한 미륵하생사상이다. 미륵이 하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전륜성왕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라의 통치자인 왕이 바로 전륜성왕이며 신라가 수행하고 있는 삼국간의 통일전쟁은 미륵용화정토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신라에서는 전륜성왕이 미륵과 동일시되어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신격화함으로서 그 사상이 반영되어 미륵여래상이 조상되었던 것이다.

통일신라대에 조상되었던 미륵보살상은 감산사 미륵보살입상 뿐이지만, 이 상이 조상되었던 시기는 통일신라의 전제왕권이 강화되던 시기이다.

전제왕권과 관련하여 도솔천왕생사상(兜率天往生思想)보다는 아미타정토왕생사상(阿彌陀淨土往生思想)이 더 성행하게 되었다. 즉 신라의 아미타정토왕생사상은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의 의미보다는 현생왕생사상(現生往生思想)이 강조됨으로서 신라의 골품제도를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골품제도에서 소외되었던 6두품 이하의 계층에 의해 미륵신앙이 신앙되었다.

신라왕실은 진골귀족 세력을 누르고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계율을 강조하는 미륵상생사상을 받아들여 6두품 출신이 중심인 유가승들은 신라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사상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미륵상생사상은 아미타정토사상 중에서 현생왕생사상(現生往生思想)을 부정하고 도솔천왕생을 바라고 미륵이 하생할 때 다시 미륵과 같이 태어나 영원히 용화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 중대(中代)인 통일신라 전반기의 미륵사상과 아미타사상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관계로 양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세기 중엽에 성립된 법상종(法相宗)의 미륵하생사상이 반영되어 미륵여래상이 조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8세기 중엽 이후 법상종은 일반 민중들의 깊은 사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미륵여래상은 그렇게 많이 조상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신라 하대에 이르면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인 화엄종(華嚴宗)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신봉되면서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의 조상이 유행한 결과로 지배층과 떨어진 법상종의 주불인 미륵여래상의 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VI. 결론

지금까지 신라시대에 조상되었던 미륵상들의 양식적인면과 각 상들의 도상(圖像) 분석을 통하여 신라 미륵상이 차지하는 조각사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라시대에 조상되었던 상들 중에서 미륵상으로 추정되는 각 상들은 미륵상으로서의 독특한 도상을 지니고 있어 신라시대 미륵상연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각 상들의 도상적 성격으로 볼 때 신라시대 미륵보살상(彌勒菩薩像)의 경우는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과 감산사(甘山寺) 미륵보살입상(彌勒菩薩立像)으로 대부분이 반가좌 형식이며 감산사 미륵보살상만이 입상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입상 형식의 미륵보살상들이 많이 조상되어진다.

신라 미륵보살상의 특징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반가상 형식과 입상 형식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교각좌(交脚坐) 형식(型式)과 반가좌 형식의 미륵보살상이 만들어지지만 한국에서는 교각미륵상(交脚彌勒像)의 형식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반가사유상은 도상적으로 볼 때 도솔천의 미륵보살상으로 조상적인 바탕이 되는 사상으로 도솔천왕생사상이다. 비록 반가사유상의 도상적인 모태는 출가한 태자상이지만, 중국 북제 이래 도솔천에 왕성한 미륵보살상으로 그 도상이 되면서 태자상보다는 미륵보살상으로 도상적인 성격이 바뀌었다. 그리고 신라 또한 도솔천의 미륵보살로서 반가사유상 도상을 수용하면서 미륵보살상으로 조상되었다.

미륵여래상(彌勒如來像)은 일반적으로 좌상(坐像)의 형식으로 삼존상(三尊像)이나 독존(獨尊)의 형태로 나타난다. 신라 미륵여래상으로서 좌상의 경우에도 삼화령(三花嶺) 미륵삼존상(彌勒三尊像)과 같은 의좌상(倚坐像)이나 용장사지(茸長寺址) 삼층연화대(三層蓮花臺) 석조미륵여래좌상(石造彌勒如來坐像)과 같이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좌상형식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러나 단석산(斷石山) 마에미륵여래입상(磨崖彌勒如來像)의 경우는 예외적인 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별로 조상된 미륵상으로는 삼국통일 전의 고신라에서는 미륵보살상으로는 반가사유상과 미륵여래상으로는 삼화령 미륵삼존상, 단석산 마에미륵여래입상이 조상되었다.

6~7세기 고신라에서는 반가사유상이 많이 조상되었으나 전반적인 미륵사상이 미륵상생사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7세기에 들어서면서 미륵여래상이 조상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은 삼국통일 전쟁이 본격화되는 고신라 말기에는 미륵상생사상보다는 미륵하생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신라 7세기에 조상되었던 미륵여래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화령 미륵삼존상과 단석산 마에미륵여래상이 있다. 그런데 두 상이 의좌상과 입상이라는 형식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조상적 배경이 되는 미륵하생사상과 전륜성왕사상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고신라 대에는 삼국간에 힘을 겨루면서 영토확장 정책으로 인해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불안한 시기에 등장한 사상이 전륜성왕사상과 결합한 미륵하생사상이다.

미륵이 하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전륜성왕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통치자인 왕이 바로 전륜성왕이며 신라가 수행하고 있는 삼국간의 통일전쟁은 미륵용화정토(彌勒龍華淨土)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신라에서는 전륜성왕이 미륵과 동일시되어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를 신격화함으로서 그 사상이 불교조각에 반영되어 미륵여래상이 조상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삼화령 미륵삼존의좌상의 경우 그 근원이 인도의 전륜성왕상으로 곧 미륵이 전륜성왕과 같다는 사상이 반영되어 당당한 자세의 의좌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단석산 마에미륵여래입상은 중국 운강석굴(雲岡石窟) 담요오굴(曇曜五窟)에서 보이는 대불은 곧 황제의 상이라는 전륜성왕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라에서 전륜성왕이 나와 통치하는 것은, 곧 이

곳(신라)이 미륵용화정토이며 화랑도는 용화정토를 만들어 가는 전사(戰士)로서의 용화향도(龍華香徒)로 인식하고 불리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상되었던 미륵상으로는 감산사 미륵보살입상과 용장사지 삼층연화대 석조미륵여래좌상 등이 전해진다.

이 상들의 특징으로는 미륵보살상은 입상이라는 것에서 주목이 된다. 미륵보살상이 입상인 것은 협시보살상으로 조상되었던 보살상들의 형식을 단독상으로 조상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미륵보살상들이 조상되었던 시기는 통일신라의 전제왕권이 강화되던 시기로 전제왕권과 관련하여 도솔천왕생사상(兜率天往生思想)보다는 아미타정토왕생사상(阿彌陀淨土往生思想)이 더 성행하게 되었다. 즉 신라의 아미타정토왕생사상은 서방극락정토(西方極樂淨土)의 의미보다는 현생왕생사상(現生往生思想)이 강조됨으로서 신라의 골품제도를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골품제도에서 소외되었던 6두품 이하의 계층에 의해 미륵신앙이 신앙되었다.

그러나 신라왕실은 진골귀족 세력을 누르고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계율을 강조하는 미륵상생사상을 받아들여 6두품 출신이 중심인 유가승들은 신라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진골귀족들을 견제하고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상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륵상생사상은 아미타정토사상 중에서 현생왕생사상(現生往生思想)을 부정하고 영원한 도솔천왕생을 바라며 미륵이 하생할 때 다시 미륵과 함께 지상으로 태어나 영원히 용화세계에서 살고 싶은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 중대(中代)인 통일신라 전반기에 보이는 미륵사상과 아미타사상은 상호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관계로 양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일신라 여래상의 경우는 결과부좌 형식을 한 미륵여래상으로 8세기 중엽이후 석굴암 본존불의 도상을 그 모본(模本)으로 삼아 조상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미륵여래상인 용장사 삼층연화대 석조미륵여래좌상은 8세기 후반기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통일신라의 전제왕

권이 무너진 시기지만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통일신라 전반기와는 달리 법상종이 성립되면서 왕권과 관계하기 보다는 민중적 사상으로 파고들면서 미륵사상의 성격은 변하게 되었다. 또 법상종이 많이 신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예를 찾기 힘든 것은 화엄종과 선종의 유행으로 비로자나불상의 조상이 크게 유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신라를 상대(上代)·중대(中代)·하대(下代) 세기로 나누어 볼 때 상대에 해당하는 고신라에서는 미륵상생사상이 유행함으로서 미륵보살의 성격을 가진 반가사유상이 많이 조상되었다. 그후 고신라 말기에 이르러 미륵하생사상과 전륜성왕사상이 성행함으로서 미륵여래상이 조상되었다. 중대에 해당하는 통일신라 전반기에서는 계율을 강조하는 미륵상생사상이 강조되어 미륵보살상이 조상되었고, 하대에 해당하는 통일신라 후반기에서는 법상종의 미륵하생사상이 유행함으로서 미륵여래상이 주로 조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1. 史書類

『三國遺事』

『三國史記』

『佛說彌勒下生大成佛經』 鳩摩羅什譯

『佛說彌勒下生經』 竺法譯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沮渠京聲譯

『축역 한글대장경』 ② 方等部, 불교정신문화원, 1998.

### 2. 著書

姜友邦,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_\_\_\_\_,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考古美術同人會, 1968.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7.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社, 1983.

金元龍, 『韓國美術史研究』, 一潮閣, 1994.

文明大, 『韓國彫刻史』, 열화당, 1980.

\_\_\_\_\_, 『마애불』, 대원사, 1998.

\_\_\_\_\_, 『吐舍山石窟』, 한·연, 2000.

申村元 著, 金知見 譯, 『佛陀의 世界』, 김영사, 1999.

윤경렬, 『경주남산』 (하나), 대원사, 1998.

\_\_\_\_\_, 『경주남산』 (둘), 대원사, 1996.

李基白, 『新羅思想史研究』, 一朝閣, 1997.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92.

\_\_\_\_\_, 『석불』, 대원사, 1997.

翰林科學院,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3.

黃壽永,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90.

Huntington. Susan L, *The Art of Ancient India*, 1985.

## 2. 圖錄, 報告書, 辭典

### 1) 圖錄

곽동석, 『금동불』, 예경, 2000.

『國立慶州博物館』, 통천문화사, 1988.

『국립중앙박물관』, 통천문화사, 1996.

NHK 취재반, 李莫成 譯, 『실크로드』 ① 長安·河西回廊·敦煌, 瑞麟文化社, 1987.

『雲岡』, 文物出版社, 2000.

『中國美術全集』 13, 文物出版社, 1989.

『中國石窟 ; 雲岡石窟』 一, 文物出版社, 1991.

『中國石窟 ; 雲岡石窟』 二, 文物出版社, 1994.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五, 名著出版刊, 1917.

『韓國佛教美術大典』 1. 佛教彫刻, (주)한국색채문화사, 1994.

### 2) 報告書

『吐含山地域 佛教遺蹟 調查研究』,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2000.

### 3) 辭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3. 主要論文

姜友邦, 「仙桃山 阿彌陀三尊大佛論」 『美術資料』 21, 1977.

\_\_\_\_\_, 「傳 夫餘 出土 蠟石製佛菩薩並立像」 『考古美術』 제138·139호, 韓國美術史學會, 1978.

\_\_\_\_\_, 「햇글산 磨崖佛群과 斷石山 磨崖佛群」 『李基白先生古稀記念 韓國私學論叢』, 一朝閣, 1994.

\_\_\_\_\_, 「金銅日月蝕三山冠思惟像」 『圓融과 調和』, 悅話堂, 1996

\_\_\_\_\_, 「南山論」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_\_\_\_\_, 「金銅三山冠思惟像-北齊佛教·日本 廣隆寺 思惟像과의 比較」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金吉雄, 「倚佛坐像考」 『文化史學』 6·7, 韓國文化史學會, 1997.

김리나,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像彫刻 樣式 -七世紀後半에서 八世紀中葉의 佛·菩薩像을 中心으로」 『고고미술』, 154·155, 1982.

\_\_\_\_\_, 「三國時代 佛像樣式研究의 諸問題」 『美術史研究』 2, 미술사연구회, 1988.

\_\_\_\_\_,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 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朝閣, 1989.

金福順, 「8~9세기 新羅瑜伽系佛教」 『韓國古代史研究』 6, 1992.

金煥泰, 「新羅眞興大王的 信佛과 그 思想研究」 『불교학보』 5, 1967.

\_\_\_\_\_,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佛敎學報』 9, 1972.

\_\_\_\_\_, 「三國時代의 彌勒信仰」 『韓國彌勒思想研究』, 佛敎文化院編,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 \_\_\_\_\_, 「現存 佛像銘을 통해본 高句麗 彌勒信仰」 『蕉雨黃壽永博士古稀記念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 金恩道, 「七佛庵 佛教造像群의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1998.
- 金昌鎬, 「慶州斷石山神仙寺 磨崖造像記의 年代 問題」 『慶州文化』 제6호, 慶州文化院, 2000.
- 金和英, 「國立中央博物館所藏 金銅半跏思惟像 造成年代에 대한 再考- 足座蓮花文을 中心으로-」 『考古美術』 136·137 합집, 1978.
- 文明大, 「新羅 法相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 (上, 下)-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역사학보』 62, 63집, 역사학회, 1974.
- \_\_\_\_\_, 「太賢과 茸長寺의 佛教彫刻」 『白山學報』 17, 1974.
- \_\_\_\_\_, 「傳 禪房寺(拜里) 三尊石佛立像의 考察」 『美術資料』 23, 1978.
- \_\_\_\_\_, 「法住寺 磨崖彌勒·地藏菩薩浮彫像의 研究」 『美術資料』 37, 1985.
- \_\_\_\_\_,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의 四方佛」, 『韓國史研究』, 韓國史研究會, 1997.
- 吳亨根, 「新羅瑜伽思想의 展開와 彌勒信仰」 『韓國彌勒信仰研究』, 佛教文化研究院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 李基白,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 鄭于澤, 「吐含山地域 佛教彫刻 調查研究」 『吐含山地域 佛教遺蹟調查研究』,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研究所, 2000.
- 朱秀浣, 「新羅 石造半跏思惟像 研究」 『佛教美術研究』 3·4 合輯, 東國大學校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1997.
- 최성은, 「新羅 佛教彫刻의 對中關係」 『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0 .
- 黃富敬, 「慶州 南山三花嶺 石造三尊佛像의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1995.

- 黃壽永, 「慶州 南山 長倉谷에서 옮긴 三尊石像」 『史學會誌』 7, 延世大學校史會, 1964.
- \_\_\_\_\_, 「新羅半跏思惟像」 『李弘植博士回甲記念論叢』, 을유문화사, 1964
- \_\_\_\_\_, 「慶州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文集』, 1968.
- \_\_\_\_\_, 『韓國文化史大系』 4 風俗·藝術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0
- \_\_\_\_\_, 「彌勒信仰과 그 造像-三國을 中心으로」 『韓國彌勒思想研究』, 佛教文化研究院,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 \_\_\_\_\_, 「斷石山神仙寺石窟磨崖像」 『韓國의 佛像』, 文藝出版社, 1990.
- 宮治 昭, 「巨大佛像の原流-彌勒と毘盧舍那」 『世界の博物館』 19, 講談社, 1984.
- 陳明達, 「北朝晚期的重要石窟藝術」 『中國美術全集』, 文物出版社, 1989
- 岩崎和子, 「廣隆寺寶冠彌勒に關する 二, 二の考察」 『半跏思惟像研究』, 1985
- \_\_\_\_\_, 「韓國國立中央博物館(舊總督府博物館)藏 金銅半跏思惟像について」 『論叢佛教美術史』, 1986.
- 田村圓澄·黃壽永, 『半跏思惟像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